

죄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보자

죄에 대한 정통 교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가장 까다로운 과제 중 하나는 그 문화가 주는 틀 안에서 상상력을 풀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안식하며, 또 인류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성경이 규정하는 규범에 관해서만은 백퍼센트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살고 있는 문화의 가치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신약 시대부터 있어 왔던 과제였다. 예를 들어, 고린도 사람들이 신체를 이해하던 관점을 보자. 그것은 창세기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서 형성된 생각이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나의 신앙과 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리하게 인식하고 성경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간 중심의 죄 교리

죄에 대한 교리를 생각해 보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세속 문화권에서 하나의 개념적 우주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은 죄에 대한 교리를 왜곡한다. 이런 식으로 형성된 죄에 대한 교리의 한 예를 로저 울지(Roger Wolsey)의 “죄와 죄인에 대한 진보적 기독교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울지가 묘사하는 죄는 옳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엇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로 하여금 더 나은 판단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인간의 성향을 강조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깨지고 부서진 존재” “금이 간 항아리” “불완전한 그릇” “아름다운 엉망진창” “실수투성이”이다.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나를 “자기 파괴의 절벽”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있다.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

죄에 관한 이러한 인식의 틀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 울지에게 회개는 변형과 재조정의 과정이다. 그 결과

개인의 인격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마침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지의 글에서 가장 주목할 사실이 사라져버린 대상이다. 그는 대체로 죄를 다른 사람에게 대한 범죄 또는 나 자신에게 가하는 해악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에게도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단지 “목표를 놓쳤기” 때문이다. 글 말미에 그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는 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으로 인간 중심이라는 인상을 준다. 즉,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주로 인간의 안녕에 있다.

울지는 사실 죄에 대한 종

교적 공식화를 비판한다. 그는 예수님 시대에 “죄는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순결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상태를 말하는 법률적 개념으로 축소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구약의 율법을 “일종의 보복에 필요한 법률집”으로 간주한다.

죄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만을 놓고 볼 때, 신학적으로 보수를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와 비슷한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 의도치 않게 죄의 공리주의적, 사회학적, 치료적 차원에 치중하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죄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면으로 계속)



KAPC 목사장로 기도회 참석자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장로 기도회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권혁천 목사)는 목사장로 기도회를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딤후 4:5)’는 주제로 4일(월)부터 7일(목)까지 남가주기쁨의교회(담임 이황영 목사)에서 개최했다. 남가주기쁨의교회 아이노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황영 목사(교육부, 남가주노회) 인도로 시작된 첫째 날 개회예배는 김요섭 목사(부서기, 가주) 기도, 테너 나충길 장로, 바라톤 조덕희 목사 특송, 조민 목사(가주) 성경봉독으로 이어졌다. 이날 총회장 권혁천 목사(북가주)가 ‘하나님을 더하자(민 14:4-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권혁천牧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본 것에 대한 보고는 다른 10명과 다르지 않았다. 믿음은 사실에 하나님

을 더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는 기도이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교회는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있다.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목사장로 기도회로 모인 이유이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사실을 이겨낼 것이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더함으로 승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용호 목사(교육부 부장, 가주)의 환영사가 있은 후 기도회로 이어져 송호준 목사(남가주) 성경봉독과 류인현 목사(뉴욕프론티어교회 담임, 필라)가 ‘사랑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막 14: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11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목회단상 손기성 목사



푸른초장 이준우 목사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러리 | 시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은: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8.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책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6월 29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주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주해하라 (사무엘하 23:13-17)

2. 신약주해: 개혁주의 관점에서 주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3. 논문제목: 현대미 시대 교회 밖 성도들의 회복과 양육전략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4. 설교본문(하나 텍스트): 구약 - 레위기 16:1-10 제목/광야로 보내진 아세셀 염소 신약 - 요한복음 12:27 제목/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이다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전동진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5년 3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5년 3월29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9회 총회기간(5월 27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5년 5월 26일(월)~27일(화)

장소: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제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5년 6월29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전동진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5,26)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을 것.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전동진목사 (Rev. David Chun)

주소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전화 : (856) 359-5345 / 이메일 djchun5882@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김요섭목사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고시부 서기 : 전동진목사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

시론

판단이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미국은 대선(大選, 대통령 선거)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 두 당(黨)의 이름과 두 후보의 이름을 두고 판단하는 두 무리가 각각 지지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마 이 신문이 배달되는 주말(11월 8, 9일)이면 두 정당 중 한 곳은 승리를, 한 곳은 패배를 받아 들여야 하고, 한 사람은 다시 한 번 백악관의 그 자리를 차지하거나 다른 한 사람은 미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든지 결정 날 것이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한 결과로...

한편, 한국은 새 정권의 시작부터 시커먼 색깔의 전투 용어로 바뀐 특검(特檢)이나 탄핵(彈劾)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서로를 향해 눈쌀 찌푸리게 하는 정쟁(政爭)을 벌이고 있다. 이 또한 법정이나 시민운동을 통해 표출되는 판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가하면, 기독교계 안에서도 최근 차별금지법을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전국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자는 1027연합예배를 두고 찬반을 다투는 의견들이 언론과 SNS를 통해 공격적으로 표출되었다. 자신의 신앙적 판단들을 근거로...

판단(判斷)은 인간에게도 주셨지만, 다른 동물들에게도 주신 기능이다. 어떤 면에서는 동물들이 더 판단력이 빠를 수도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운동경기 해설자들은 재빠른 판단력을 갖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선수를 향해 ‘동물적 감각’을 지녔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인간의 판단능력은 동물의 그것을 능가한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부른다. 그야말로 그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전문가들은 자기에게 입력된 자료들을 가지고 시기와 상황 등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

경제지표를 뛰어넘는 미래 경제분석가도 있고, 혼잡하게 뒤엉킨 혼잡한 상황속에서도 결과를 예측해내는 정치컨설팅 전문가도 있다. 그런데, 종교계에도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어떤 분야의 그 누구도 정확한 결과를 예견하는 전문가는 없었다.

시대가 혼들리고 있다.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예측불허(豫測不許)한 일들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다. 언론에서는 미국대선을 49:49라고 평가하고 있다. 참 신기한 수치이다. 나머지 1%와 1%는 어디에 있는 누구일까? 그런가하면 또 다른 언론은 “Trump vs Harris누가 이기든 미국은 두 개의 나라를 준비해야한다”고 대선 후를 예견하고 있다.

정치, 경제 나아가 종교 그 어느 것이든 판단을 기초로 힘이 분배되고, 모이지만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인류의 미래를 안심시킬 수 있는 판단은 없다. 결국 인간의 모든 판단은 ‘불완전(不完全)’일 수밖에 없다.

그럼, 더욱 극심해진 불안한 오늘의 시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과거를 분석하고, 어떻게 현 상황과 미래를 판단해야할 것인가? 인간의 판단력을 훌쩍 넘어서는 일들이 사방에 널려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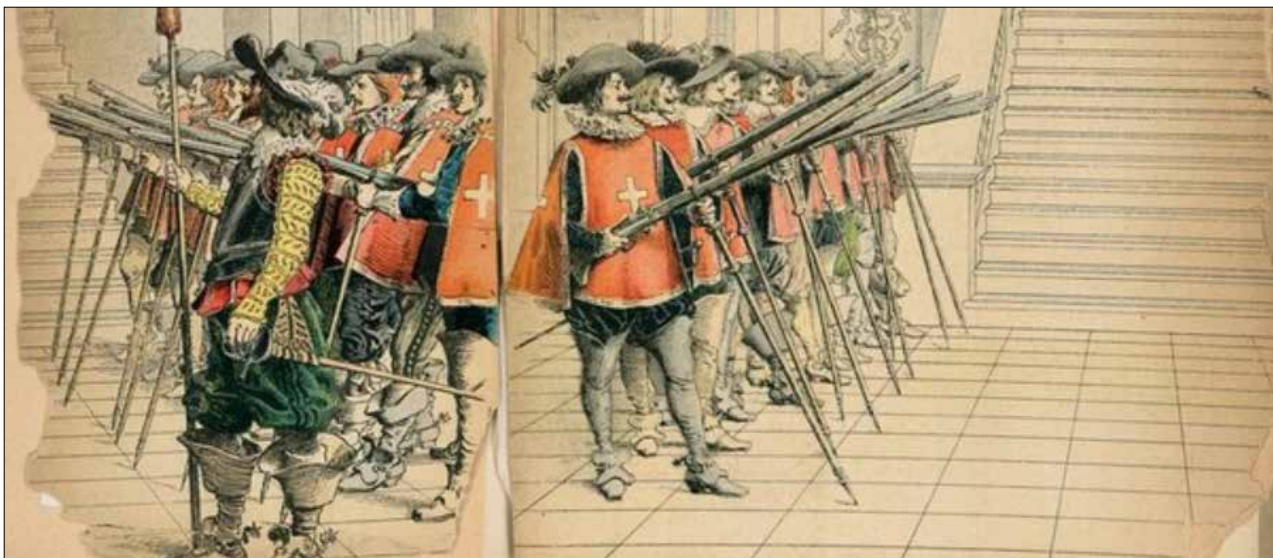
성경의 대답은 하나이다. ‘분별력(分別力, discern)!’ 이 세대를 통해 알고 깨닫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영적분별력을 갖추 것을 해답으로 말씀해주셨다. 그 중에서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이 주간에 불잡아야할 말씀을 교회에 제한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판단은 결국 분쟁을 낳지만, 건강한 영적 분별력만이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djlee7777@gmail.com

삼총사와 위그노 전쟁

칼뱅과 위그노들이 맞서 싸우면서 전쟁으로 치달은 사건이 위그노 전쟁



어릴 적 즐겨보던 만화 중에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다르타냥과 삼총사의 우정을 그린 만화로 아이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슈퍼맨이 유행할 때는 아이들이 망토를 두르고 다니듯, 삼총사가 유행할 때는 셋만 모이면 나무칼 하나씩 차고 몰려다니곤 했지요.

삼총사 만화에 보면 주인공들이 칼을 차고 다니며 종종 검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총사가 칼 잘 쓰는 무사들이 줄 알았지요. 하지만 삼총사의 총사라는 말은 프랑스 총사대(Mousquetaires) 대원을 의미하는 말이었고, 총사대는 ‘머스켓 총을 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무사보다 소총수라는 말이 됩니다.

삼총사는 프랑스와 영국이 벌인 ‘100년 전쟁’ 이후, 프랑스 내 위그노로 불리던 개신교와 구교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1337~1453년, 116년간 벌어진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영국이 우세하다가 프랑스의 영웅 잔 다르크가 짜잔 나타나더니 프랑스가 승리하므로 끝나는 전쟁이지요. 잔 다르크는 지방에 살던 평범한 소녀였는데 열여섯 살에 신의 계시를 받고 참전하였지만, 정치적 음모로 마녀사냥당해 1431년 열아홉 살의 나이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겼지만 워낙 긴 전쟁이었기에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왕권은 추락했고, 귀족들의

세력이 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듬해 그의 책이 프랑스에 전해져서, 프랑스에서도 개신교인이 생겨났지요. 그러나 프랑스는 전통적인 구교 국가였습니다. 독실한 신자 집단이기보다, 구교가 황실의 시녀 노릇을 했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구교를 고수했습니다. 일례로 삼총사에 나오는 리슐리외 추기경이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개신교도들을 화형시키고 그들을 비하하여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사람 칼뱅도 스위스로 망명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칼뱅 역시 자국의 신교를 위해 많은 애를 쓴 사람이라 프랑스에도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일로 제네바에 있던 동맹당 당수 ‘브장송 위그’라는 사람의 성을 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위그라는 사람을 종교라며 ‘위그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루터파와 칼뱅파는 단순히 교리 차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정치적으로 왕권에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칼뱅은 사회개혁을 추구했던 인물이라 당시 권력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바로 이런 칼뱅파들을 위그노라고 부르고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는데, 칼뱅과 위그노들이 맞서 싸우면서 전쟁으로 치달은 사건이 위그노 전쟁입니다.

삼총사는 왕의 근위대였던 총사대의 일원이므로 이들의 임무는 위그

노를 척결하는 것입니다. 리슐리외 추기경이 삼총사와 다르타냥을 이 전쟁에 보냈고, 이들은 훌륭하게 그 임무를 완수하여 위그노들을 몰리치게 됩니다. 이 일로 다르타냥은 총사대 부대장으로 임명받지요. 만화는 다르타냥이 부대장이 되어 출세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목사가 되겠다던 제가 어릴 적 이 만화에 빠져서 개신교도들을 탄압했던 다르타냥 흉내를 내고 놀았던 셈입니다. 씁쓸해지네요.

만화에서는 리슐리외 추기경이 다소 악당 비스듬하게 나오긴 하지만 역사에서의 리슐리외 추기경은 훌륭한 신하였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위그노들을 제압하고 개종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 리슐리외 추기경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개종은 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유럽 분토에서는 마지막 종교전쟁이자 최초의 세계 전쟁인 ‘30년 전쟁’이 반발합니다. 네 차례 격렬한 전투가 있었는데, 첫 두 번은 말그대로 구교와 신교의 종교전쟁이고, 나머지 두 전쟁은 앞선 전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엮인 국가들의 세계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위그노 전쟁을 치르면서 구교를 강화했던 나라임에도 정치적 독살에 따라 30년 전쟁에서는 신교도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30년 전쟁을 끝냈던 장본인이 프랑스의 리슐리외 추기경이었고, 그 방법도 총사대를 파견함으로 전쟁을 종식했습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8-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증설교

[세 자녀가 하버드와 동부 명문대학에 진학, 졸업 후 전문직 취업과 20대 중반 결혼시킨 경험과 노하우 공유]

< 감사 이훈구 장로 약력 >

*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 감사나눔 공동체:

*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간증설교 문의 : g2gmission@hotmail.com

캘리포니아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자격요건

- 미국 남침례교단이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남침례교단에서 목회안수를 받은 자

- 목사 안수 받은 후 목회 경력 5년 이상이신 분(부교역자 경력 포함)

-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영어로 의사소통 및 설교가 가능하신 분

-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 미국체류 및 미국 내 목회에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본인이력서 (3개월 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포함)

-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자기소개서 (신앙간증, 목회비전, 가족소개 등)

- 추천서 2부 (추천해 주신 분이 직접 본 교회 이메일로 추천서 전송)

- 최근 6개월 내 설교 동영상 3편 유튜브 링크 혹은 타블사이트 링크 (3편 중 1편은 영어 설교, 만일 영어설교영상미 없을 경우 별도로 영상 촬영하여 제출)

*제출서류를 본 교회 이메일 kbcsj.offices@gmail.com 로 제출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KCP

산호세한인침례교회

1056 Pinewood Dr.San Jose, CA 95129 / TEL : 408-257-5444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캐나다

한국/동남아시아

\$100

\$130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240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한글:

목 사 ☐

영어:

평 신도 ☐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년월일

신청인 서명: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죄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1면에서 계속>
죄에 대한 정통 교리는 하나님 중심이다

죄에 대한 인간 중심의 틀을 다윗 왕의 간음과 살인 사건 이후에 쓰인



시편 51편과 비교해 보자.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오직 당신께만 죄를 지었고 당신의 눈앞에서 악을 행 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한다. 그가 여러 사람을 심각하게 해친 것도 사실이 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깨달았다.

죄의 교리에 관련해서 존 스토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용서의 문제”라는 제목의 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서 죄에 대한 성경의 여러 은유를 강조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고, 죄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계신다(예: 사 6:1; 57:15; 수 3:4). 하나님은 또한 접근이 불가능한 빛이시며, 소멸하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죄의 속죄

다행히도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또한 사랑도 많으시다. 속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깊고 다면적인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초래하는 죄책감, 죄에 대한 형벌, 죄의 더러움에서 구출된다. 그리고 죄에 의해 모욕당하신 하나님과 화해한다.

죄에 대한 잘못된 교리는 다른 하나님 교리(특히 그의 거룩함에 대한 교리), 다른 속죄 교리(대속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음), 인간에 대한 다른 확신(지나친 낙관주의), 그리고 세상의 병폐와 그 해결책에 대한 다른 개념을

인간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오늘날 세상 문화의 기본 사상에 잠식될 것이다. 이런 실패는 교회 역사 속에서 흔히 발생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실패를 목격하는 게 꼭 두려움을 초래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현실을 자극으로 삼아서 우리는 제자 됨이라는 확고한 토대 위에서 비판적인 기독교 지성을 훈련하고 기독교 상상력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포스트 기독교 시대를 사는 목사와 교사가 이보다 낮은 기준으로 사역해서는 안 된다.

by Chris Northcott, TGC

삼총사와 위그노 전쟁

<2면에서 계속>
총사대가 사용한 머스킷이라는 총은 임진왜란 때도 등장하는 조총으로, 쇠파이프에 화약을 밀어 넣고 쇠불이 총알을 넣은 다음, 심지에 불붙여서 쏘는 총입니다. 사실 이런 머스킷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았는데, 습한 날씨에는 불발되기 일쑤고, 비 오면 화약이 젖어버려서 그냥 애물단지가 되고 말지요. 명중률은 완전 허접 그 자체입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연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총 한번 쏘고, 화약 쟁여 넣고, 심지에 불붙이는 동안 칼 맞거나 활 맞는 형편이었습니다. 사거리 측면에서 보면 활보다 월등히 높지만, 명중률이나 연사에서는 활이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리슐리외의 총사대는 위그노 전투를 치르면서 이런 단점을 커버하는 전술을 만들었는데요. 소총수들을 길게 줄 세워 놓고, 1열이 총 쏘고 맨 뒤로 빠지면 2열이 총을 쏘고 다시 뒤로 빠지고 하는 형태로 후진하면서

연사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전쟁은 기마병이 중요한 전술 부대였는데 이 기마병을 제압한 게 바로 후진하면서 총을 쏘대던 총사대였습니다. 명중률이 떨어지는 단점도 1, 2, 3열이 동시에 총을 쏘서 총알이 그물망처럼 날아가게 하는 탄막군 형성법으로 ‘아무나 맞아 죽어라’ 하는 형태로 대응했습니다.

삼총사 만화에 총보다 칼이 더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런 머스킷이 큰 전투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위그노 전쟁으로 총사대가 전술적 업그레이드를 거쳤고, 이것이 30년 전쟁에서 신교도들의 큰 힘이 되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by 전재훈, TGC

목회단상

누가 밀었습니까?



손기성 목사
(은혜장로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자 재미난 조크를 하십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왕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을 위해 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고민을 해봐도 이미 다 가진 딸에게 줄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고민하다 결혼할 때가 다 되었으니 용감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청년을 뽑아 혼인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왕은 온 마을에 방을 내리고 왕궁 앞에 있는 큰 호수를 해엄쳐 건너오는 청년을 사위로 삼아 부마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온 나라의 용감한 청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호수를 건너가려 엄두를 내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이유는 호수에 식인 악어들을 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망설이고 있는 그때 어느 청년이 풍덩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악어들을 때어내며 호수를 가로질러 맞은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올라갔습니다. 이 용기에 모인 무리가 환호하고, 이 모습을 지켜본 왕도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혼인을 허락하느라 공포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손을 흔들며 힘껏이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호수로 밀었습니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화가 마치자 성도들이 모두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때다 싶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어떻게 등 떠밀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최소한 자발적으로 신앙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많은 분이 접해 보셨을 예화이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등 떠밀린 청년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 등 떠밀린 성도들과 사명자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새해가 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교회에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역자든 성도든, 자신이 원했던 그렇지 않던 어떤 자리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시거나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자신이 하고 싶고 가고 싶었던 곳에 대해 저지를 당하고 다른 곳으로 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롬15).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기회를 주실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복음의 기회를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걸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께서 등 떠미신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조금 과한 상상일까요? 로마로 가는 일이 바울이 원하는 일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55:8-9)고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고, 없고 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맡고 그만한 위치에 세워질 때 겸손하게 누군가 나를 밀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주변 나를 아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등 떠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밀어 이곳에 세우신 분이 불드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주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 있게 등 떠밀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word4u@gmail.com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1) OT Exegesis Text : 2 Samuel 23:13-17
(2) NT Exegesis Text : 1 Thessalonians 4:13-18
(3) Thesis Topic : "From a reformed perspective, present a strategy for the restoration and nurture of the Endemic Generation that have left the church."
(4) Sermon Text: (Choose One) O.T- Leviticus 16:1-10 "The Goat Sent Away into the wilderness to Azazel"
N.T- John 12:27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to This Hour"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③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④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⑤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⑥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⑦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David Chun-OTExegesisPaper.pdf)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29, 2025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29, 2025.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b)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9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7, 2025).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a) Dates : May 26(Mon)~27(Tue), 2025
b) Place : Grandover Resort & Spa, A Wyndham Grand Hotel
1000 Club Rd, Greensboro, NC 27407 / (336)394-1800

Accompanying Documents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5.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g)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5,26) through Rev. David Chun
b)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David Chun
Address : 2201 Gramercy Way Mt. Laurel, NJ 08054
Cell : (856) 359-5345 E-mail : djchun5882@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Kim redeemer@gmail.com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Chun djchun5882@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교황 레오 10세(재위1513-1521)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공화국을 이끌면서 교황과 여러 번 맞서야 했다. 그런 정황에서 자신의 가문을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교황청에 줄을 대야 한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그래서 로렌초 메디치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아들 요한을 추기경에 앉혔다. 당시는 힘만 있으면 어린 나이에도 추기경이 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교황은 대체로 리더쉽과 인품이 탁월해야 추기경들의 지지를 통해 뽑힐 수 있었다. 그러나 중세 역사를 보면, 재물이 많으면 당선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유는 유력한 후보를 돈으로 매수하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로렌초 데 메디치는 15세 된 딸을 38세의 현직 교황

의 사생아와 정략결혼을 시키는 대가로 아들을 13세에 추기경에 서임 받게 할 수 있었다. 물론 어린 딸을 교황의 사생아에게 시집 보낼 때 두둑한 지참금(현재 시가로 8백억)은 잊지 않았다.

당시는 바티칸을 건축하는 상황에 있었기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때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신참 주교가 부임하게 되면 일 년치 사례비를 모두 교황청에 납부해야 했다. 그런데 유럽의 주교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도록 하고, 또한 주교의 임기를 줄여 이동의 회수를 많게 함으로 수입을 늘리기도 했다. 또한 돈이

필요할 때는 한꺼번에 주교 몇십 명을 서임하여 모자란 재물을 보충했다. 이런 탐욕스러운 방법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만든 원인이었다.

중세의 교황은 돈과 외교적 역량 없이는 그 직을 감당하기에 불가능했다. 도시국가의 통치자들과 유럽의 왕들을 항상 견제하고 또 조율해야 했고, 그 힘든 일을 성사하기 위해 뛰어난 판단력과 때로는 큰 물질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자리인데도 추기경들은 서로 신의 대리자라는 교황의 자리에 앉아보고 싶어 했다. 메디치가의 레오 10세는 38세에 교황의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사촌 동생 줄리아노에게 외쳤다.

“신은 우리에게 교황직을 주셨다. 이제 함께 즐기자.”

그러나 그는 유능한 인물이었다. 추기경으로 풍부한 소양과 다양한 지식을 쌓았고, 특히 아버지 로렌초 메디치의 영향으로 인문학과 예술을 사랑했고, 학문에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전기 작가는 레오 10세의 통치 기간을 황금기로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인 메디치를 중흥시키려고 무던 애를 썼다. 그래서 사촌 두 명과 조카 세 명을 추기경으로 서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교황의 자리에서 돈을 몰 쓰듯 쓰고도 모자라,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메디치가가 운영하는 은행에 큰 빚을 남겨야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추기경들이 공모했다고 발표하여 여러 명을 죽였고, 또 그들의 옷을 벗겼다. 그러므로 31명이 넘는 추기경 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데, 그때 루터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붙였다. 그 당시 바티칸은 아직 법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살 수 있었고,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내면 죽은 후에 연옥에서 지내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사람들을 유혹했다. 당시 바티칸에는 성직 매매로 인한 자리가 2,150개가 넘었을 정도였다.

제정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돈이 필요하게 되면 원로원 의원 가운데 부요한 자를 역모에 연루되었다고 체포하여 죽였고, 그의 모든 재산을 탈취했다. 교황도 자신의 헤본 씬숨이 때문에, 그런 사나운 방법을 동원한 것 같다.

그런데 교황은 마틴 루터의 항거를 한동안 관망함으로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되었다. 왜 발 빠르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또는 막강



라파엘이 그린 교황 레오 10세. 왼쪽은 조카, 후에 클레멘트 7세 교황.

한 권력을 지녔던 제후들을 통해 압박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어떤 학자는 말했다. 전통적으로 작센지역을 바티칸 당국은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제정 로마는 게르만 장벽 이북에 사는 사람들을 무식한 자들로 치부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예로부터 글도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후예들이 과연 개혁을 꾀할 수 있었는가? 라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겠다 싶다. 더구나 마틴 루터가 일개 수도사 출신이었으니 말이다.

이런 교만한 생각이 개혁의

불길게 가볍게 보았고, 그랬기에 몇 년 동안을 대처하지 않았다. 그런 바티칸 당국의 게으른 대처가 개혁에 성공의 원인이 되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만일 레오 10세 교황이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당시 부패한 가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고...

레오 10세, 그는 준비된 교황이었으나 영국의 사학자 칼라일은 “그는 그리스도인이기보다 오히려 이교도였다”라고 갈파했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이준우 목사

(벨리한인커뮤니티교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세상의 땅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제한된 땅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다투고, 나라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강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까?

역사상 많은 정복자들은 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강한 자가 땅을 얻는 것이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원리와 예수님의 원리 중에 어떤 것이 옳을까요?

알렉산더 왕은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정복하는 땅에 자기 이름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세계에 7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정복자라면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징기스칸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차지한 땅에서 살아 보지도 못하고 33세의 나이에 심각한 전염병에서 죽었습니다. 징기스칸이 남긴 땅은 척박한 땅인 몽골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제국도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도 보면 강한 자들이 많은 땅을 차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가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공룡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호랑이처럼 강한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호랑이의 개체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는 보호 동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땅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동물들이 더 많이 번식합니다.

강한 자들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온유한 자들에 의해 점령되고 있습니다. 한때 강한 자들이 이름을 날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온유함이라고 하면 나약함, 부드러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나약한 자들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

람으로 생각합니다.

1.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온유함을 오늘날의 의미గా 아닌, 성경을 기록할 당시 헬라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온유함(프라에이스)이란 단어는 당시에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환자가 고열로 고통당할 때 의사가 준 약을 먹고 열이 떨어져서 단잠에 빠진 상태를 프라에이스-온유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폭풍우가 몰아치던 바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그치고 잔잔할 때 프라에이스-온유라 합니다. 세 번째, 길길이 날뛰던 야생마가 훈련되어져서 온순해진 상태를 프라에이스-온유하고 했습니다.

세 번째 뜻에 주목해 보십시오. 길들여진 야생마가 온유함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이 있지만 절제되어진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온순하고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과 열정에 끌려가지 않고, 정의와 선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온순해지면 힘차게 달리지 못하니까? 그 힘과 기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런데 이제에는 자신의 뜻대로 달리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길들여진, 또는 굴복되어진’이란 뜻입니다.

2.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마태복음 5:5

에 대해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나약함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강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굴복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드린 분입니다.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 5,000인분의 식사비를 한 끼에 사용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의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은 혼자서 많은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이 먹고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강한 것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혀와 이빨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이가 강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는 다 빠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혀는 여전히 있습니다.

나무를 보아도 딱딱한 나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나무가 강합니다. 나무가 딱딱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장작이 딱딱하고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입니다. 꺾으면 꺾여집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부드럽게 휘어집니다.

딱딱한 사람이 강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버티다가 부러져 버립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힘이 있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줄 힘이 있기에 부드러운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3. 땅을 기업으로 받음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부동산을 갖게 되는 것일까. 시 37:9-11은 “땅을 갖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쫓겨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땅을 갖는 것은 그것을 누리며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것을 종합해보면 땅을 얻는 것은 “소유권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땅을 갖고, 물건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고, 만족하며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즐기는 것이 땅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 집을 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무리해서 큰 집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여름이 되니 물값, 전기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을 틀 수 없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끔고 삽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포터블 에어컨을 놓고 여름을 보내고, 겨울에는 전기난로를 놓고 겨울을 보냅니다. 이런 것은 자신의 소유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옷을 샀습니다. 한 번 입고 나니 싫증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입지 않고 옷장에 걸어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옷장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고 특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이 얻은 집은 그곳에 살고 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사도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불평만 생깁니다. 그렇게 사랑해

서 부부가 되었는데, 왜 결혼 생활을 즐기지 못합니까.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평을 합니다. 내가 눈이 잘 못되었지, “어쩌다가 저런 것을 선택 했을꼬”하며 한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온유함이 없으면 그것은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작은 것도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실제 소유하게 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땅을 얻습니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만이 가진 것을 누립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영향력을 넓혀나갑니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려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온유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계속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문제를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성도들끼리, 친구들끼리 수십 년 함께 하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싫어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온유함으로 상대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전 세계에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온유함으로 많은 땅을 얻으십시오. 자신의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온유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jlwee707@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대선을 마치고…… 미국의 “정직, 성실” 은 지금도 존재하는걸까요?

이 글을 쓰는 오늘은 대선 투표가 있기 바로 하루 전인 11월 4일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왜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지, 투표를 안 하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국가적, 더 나아가 개개인 삶에 끼쳐지는 영향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투표의 기준들을 그동안 나눠왔습니다.

이 글을 읽을시 때면 이미 대선이 끝난 후겠지만, 대선 결과는 예상이 불가능했 을 것이고, 그 이유는 투표시스템의 유동적 상황들로 인해 추측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투표시스템이 과연 신뢰할만한지 아니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단체의 전문 분야 중 하나인 각주에 통과된 법안들을 통해, 주별 유권자 신분증(ID) 관련 법률을 추적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별마다 통과된 유권자 신분증(ID) 관련 법률에 따라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고, 신분증을 보여 줄 필요가 전혀 없는 주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주별 유권자 신분증(ID) 관련, 실제 상황은?

2024년 10월 현재 미국 35개 주에서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다른 많은 주에서는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를 또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35개 주들중 25개 주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유권자에게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나머지 10개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35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주들은, 매우 놀랍지만, 선거 당일 투표소에 온 사람들에게 ‘유권자 확인’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확실하게 유권자 자격을 확인하는 곳은 25개 주 (25 States)뿐이고, 다른 10개 주에서 통과된 법률들은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돼 있지만, 매우 느슨해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은 15개 주는 아예 신분증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미 전역의 어떤 주들이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률을 가지고 있는가? 투표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신의 “사진신분증-Gov. issued ID”를 가지



고 와야하는 25개 주들 Picture ID Required: 미주리, 테네시,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알라바마, 위스컨신, 와이오밍, 플로리다, 조지아, 뉴햄프, 미시시피, 몬타나, 네브라스카,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캔터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로드 아일랜드, 루이지애나, 미시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대코타.

사진 신분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을 가져와도 되는10개 주들 No Picture ID required: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알래스카, 유타, 아이오와, 아리조나, 노스다코타, 알칸사스,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예로, 주수가 적힌 document, 투표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면 통과됨)

아무 신분증 없이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머지 15개 주들 No ID required: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뉴멕시코, 오레건, 일리노이스,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미네소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하와이, 버몬트

보시다 시피, 신분증을 아예 보여 줄 필요 없다고 하는 15개 주는 Deep Blue State 들로, 반기독교, 반학부모, 반자유민주주의 정책을 펼친 지 오래된 주 (States)일뿐 아니라 특별히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들어온 수많은 성매매자들(아동 포함), 총 밀매자들, 마약밀매자들, M13 같은 무시무시한 갱단들 등등의 사람들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들도 많기에, 신분증 없이 투표하게 한다는 그 어떤 이유들도 비상식적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려가 깊어질 뿐입니다.

위의 지도는 2024년 Ballotpedia 에서 주별로 유권자 신분증을 의무화하는지 않는지, 예외가 있는지를 색깔별로 알려준 지도입니다.

파란색 주들은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을 보여 줄 때 작은 예외를 빼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진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렌지 색 주들은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이 꼭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진신분증이 아니어도 되는 주들입니다.

회색의 주들은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을 보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 주려고 해도 보지 않는다는 실제 사례들이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서는 넘쳐났습니다.

유효한 신분증의 자격은 무엇이었나? 유효한 신분증에 대한 요구사항은 주마다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신분증에는 운전면허증,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군인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신분증은 위의 25개 주에서 의무화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권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특정 주에서마저도, 일부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사진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위의 10주 들인데, 이런 주들은 등록 유권자가 처음 투표하는 사람일 경우, 투표소에서 사진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외, 투표소 직원에 따라서 예외가 허락됩니다.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15개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처음 투표하는 유권자에게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신분증이 반드시 정부가 인정하는 사진신분증이 아니어도 되며 일반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연방정부의 대선 투표법은 어떨까요?

미연방법에 따라 신규 유권자는 등록 시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사회보장번호 마지막 4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는 많은 주에서는 유권자가 필요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임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청교도 정신으로 건립된 미국은 the nation of integrity (정직과 성실의 국가)라는 청렴한 국가가 되는 것을 지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류언론들과 미디어가 음모론으로 몰고 간 일들이 사실상,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알게 되니, 크리스천들에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 실행할 것이 더 요구됩니다. 이런 악법들은 우리 자녀들과 미국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참조하세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11월 추수와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집사로 미국에서 현재 조그만 비즈니스 가게를 운영하는데 매달 큰 수입도 아닌데 바쁘게 쫓기듯이 일하며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조그만 가게이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가 부족했던 저에게 감사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벨 플라워에서 정 집사가

작은 것에서 감사

A: 정신의학에서 한스 셀리에(Hans Seyle 1907-1982)라는 분은 1958년도에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슬로바키아 태생의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고별 강연을 하버드대학에서 하고 내려가자 백발의 대가 노교수들이 뺨뺨이 들어서며 기립 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 학생이 길을 막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분이 딱 한마디를 말합니다. Appreciation(감사)

사람이 재산을 늘리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을 더 많이 벌여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잘해 한 해에 수천 만불 이상의 돈을 받게 되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재산을 늘리는 다른 방법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의 Value 즉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비즈니스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일하면 그것이 수입이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수입은 참으로 가치있는 것이요 그 직장은 내게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잠언 16:8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 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깨끗한 직장은 수백만 불을 버는 직장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영어로 Apprecia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가격증가란 뜻이 있는 동시에 감사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감사하게 될 때 평가 절상이 되며 진짜 그는 부유한 사람 즉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초라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 즉 감사기도를 했을 때에 그것이 큰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 르나르는 그의 작품인 흉상무릎 통해 유명해졌는데 이작가는 신체에 늘 허약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눈이 보인다. 귀가 들린다. 몸이 움직인다. 기분도 괜찮다. 고맙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우 평범한 것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심플(Simple)한 것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신플(Sinfu)한 죄악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11:7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제 부친이 목회하시다가 중풍이 와서 한쪽이 마비가 와서 잘 걷지 못 하시기 되었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두발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알지 못했다”. “행복넘, 작은 직장이지만 천직으로 알고 감사하며 행복해 하십시오 특히 감사의 계절에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입고 천국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세기로뻘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세계로 뻘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98, www.nscsca.org / www.telcpc.org Tel: (323) 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영양 예배): 오후 2:00 영양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sa.org 170 Birmit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일요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 biblehills.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전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저녁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 (213) 388-1927 / www.wmcsa.com / worldmissionchurch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공부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선전교회 협동목사) 성당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어르신자녀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 역: 1. 복화성당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 Tel: (714) 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양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smang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 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Y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 (분당) 새벽 기도회: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C-공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3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C-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u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기로 뻘어가는 복음신로...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평화

글자 전쟁이라는 책을 읽었다.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소름이 돋을 만큼 흥미롭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책이었다. ‘시인은 손바닥에 한 알의 씨앗을 올려 놓고 새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있다. 그 책의 내용은 시인의 상상 이상으로 비약하기도 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전혀 소재로 삼거나 그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내용들이었으나 역사라는 팩트에 기댄 뒷붙임과 해석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 갔다.

총칼이라는 무력 대결의 승패는 말 그대로 힘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글 또는 언어로 대변되는 문화는 다르다. 사람

들의 뼈에 새겨지고 혼이 지배되기도 한다. 그래서 팬이 총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나 보다.

중국은 지금도 무력을 과시하는 다른 한 편에서 문화 찬탈의 공세도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우거나 그들 안으로 편입하려 혈안이 될 정도다. 중국의 56개 민족 중 조선족의 역사는 길게 잡아도 백 년 안팎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한복과 김치뿐만 아니라 아리랑마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땅의 경계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중국의 것이라는 논리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이 글인 한자(漢字)다. 중국의 글인 한자를 빌려 쓰고(?) 있는 모든 곳,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도 포함이 된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다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내가 본 책은 그 허구를 지적하며 한자가 과연 중국의 것이냐고 되묻고 있다.

평화(平和)의 본질은 힘이 아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용할 때 이뤄진다. 강한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다. 불만과 불평이 억울함으로 표출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것이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했다. 그러나 아들은 낫을 빌려오지 못했다. 거절당한 것이다. 얼마 후 이웃집이 낫을 빌려러 왔다. 아들은 낫을 빌려주지 않으려 했으나 아버지는 빌려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웃이 그랬으니 나도 그러는 것은 복수(復讐)며 미운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증오(憎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긍휼(矜恤)이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한1서 4:16)

세상이 온통 뒤숭숭하다.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이 커져가고 그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다. 객체가 아니라 연합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을 모두가 받게 되는 구조로 얽혀있다. 단일 민족, 단일 국가라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무색해져 가고 앞으로 이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과 정기스칸은 무력 즉,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었다.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무모하게 끝이 났다. 중국은 지금 힘과 문화로 세계를 주도하려 한다. 오대양 육대주에 중국이 진출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사람이 가면 문화도 따라간다. 언젠가 중국인들이 살면서 뿌린 문화로 인해 세계가 중국화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야심찬 시도도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의 도(道)는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는 길로만 치닫는다. 공자(孔子)는 군자의 가치를 충(忠), 효(孝), 예(禮)에 두었다. 그런데 그런 가치는 필경 신분의 높낮이를 구분하게 만든다. 인간 차별이 불가피한 가치다. 진정한 평화가 이뤄질 수 없다.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늘의 뜻인 까닭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용서와 이해와 타협도 사랑 안에서는 가능하다. 다름을 틀림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사랑이다.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유행한 노래가 있다. 손에 손잡고다. 썸과 함과 야벳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사랑!

이 사랑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통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다. 이 사랑만이 갈등과 반목과 차별을 녹여서 세상이 바라는 평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덮어야 할 이유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성도, 젊고 학력 높을 수록 ‘타종교 친구’에 우호적

미국의 기독교인 10명 중 7명(71%)는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젊고 학력이 높은 기독교인일수록 타종교 친구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가 기독교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조사에서 응답자 5명 중 약 2명은 불가지론자(신의 존재를 확신하지 않는 사람, 44%) 유대인(41%) 또는 무신론자(39%)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무슬림(28%) 불교(11%) 힌두교(11%)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5명 중 1명(18%)은 ‘타종교 친구가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갤럽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의 기독교인 비율은 68%로 1940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1956년(96%)에 비해 28%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당시 유대인은 2%, 무슬림 불교인 힌두교인 각각 1%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젊고 학력이 높을수록 타종교인 친구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을 보였다. 18~34세 응답자의 경우 ‘타종교인 친구가 없다’는 항목에 13%가 동의했지만 50~64세와 65세 이상 응답자 그룹은 각각 22%, 20%가 동의했다. 또 학사(14%) 석사(12%) 학위 소지자에 비해 고졸 이하(22%) 응답자가 타종교인 친구가 없다고 답했다.

스톡 매코넬 총괄디렉터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거품 속에 살지 않고 비기독교인 친구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책임감을 갖고 비기독교인과 관계를 맺는 비율은 적은 수준”이라며 “종교가 낯선 이들과 더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 8200만표… 2020년 대선 전체 투표수의 절반 넘어

미국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까지 약 8200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AP는 이같은 사전투표 수는 직전 2020



년 대선 전체 투표수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라며 사전투표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이전보다 많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팬데믹 시기에 치러진 2020년 대선 때는 사전투표 비율이 69%로 역대 최고였다. 총 1억 145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고, 이 가운데 6564만 명이 우편투표자였다. 2016년 대선 때는 사전투표자가 총 4724만 명, 이 중 우편 투표자가 2422만 명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선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사전투표가 이날까지 180만 장으로 집계됐다고 펜실베이니아주는 선거 당일 오전 7시까지 우편투표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결과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사전투표는 사전 투표소 투표와 우편투표로 진행된다.

또 다른 경합 주인 위스콘신주도 우편투표 처리를 선거일 아침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위스콘신주의 사전투표는 150만 장에 이른다.

“한글로 언어·전통 보존해요” NYT, 찌아찌아족 조명

한글을 사용해 고유 언어를 보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이 민족 정체성 보전의 성공사례로 조명됐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찌아찌아족의 아이들이 한글로 ‘찌아찌아어’를 배우는 현장을 소개하며 ‘찌아찌아족의 언어는 수 세기 동안 구두로 전해져 왔다’며 “한글을 통해 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찌아찌아족은 인도네시아 중부 부론섬에 사는 소수민족이다.



인도네시아는 300여 개의 민족이 70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문자가 없어 인도네시아 공식 언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에 잠식돼 사라져 가고 있다. 총인구가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찌아찌아족도 표기법이 없어 고유 언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지역 원로들과 학자들은 찌아찌아어가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아랍어 등을 이용해 표기법을 연구했다. 부론섬에는 아랍어로 쓰인 울리오 방언이 1500년대부터 쓰여 왔다. 이 과정에서 찌아찌아어가 아랍어보다 한국어와 더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2009년 한국 학자들은 바문섬을 방문해 한글을 전파했다. 한글을 가르친 교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2020년 한글로 된 찌아찌아어 사전이 발간되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현재 찌아찌아족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로 고유 언어를 배운다. 이를 위한 자체 교과서도 존재한다. 찌아찌아족이 다수 거주하는 바우바우시 소라올리오에는 거리와 학교, 공공기관 등의 명칭이 로마 알파벳과 한글로 함께 표기돼 있다. 한국 학계는 그간 여러 차례 문자 체계가 없는 민족에 한글을 전파하려 시도했으나, 성공한 사례는 찌아찌아족이 유일하다고 NYT는 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글을 배워 현지에서 전파한 찌아찌아족 원주민 아비딘은 NYT에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빌려왔다”면서 “옛 한글과 현대의 한글을 섞어서 독특한 찌아찌아의 것으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한글 도입이 문화적 지배로 이어지거나 공동체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외국 언어와 혼합이 보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미럴 타밈 전 바우바우시장은 “언어는 공동체의 부이자 유산”이라며 “언어는 부족의 문명을 보여주고 고유 알파벳이 없는 언어는 그 진정성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문화는 다양하며 회복력이 있다. 다른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지 말자”며 “전통 언어를 보존할 방법이 있는데 왜 그 언어가 멸종하게 내버려 두는가?”라고 반문했다. 라 오데 알리르만 사회학자는 “언어가 사멸하면, 그 부족의 정체성과 그 지역의 지혜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민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지역의 지혜와 조상의 역사, 기억, 부족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간직할 수 있다”며 찌아찌아어 보존의 의의와 중요성을 설명했다.

목숨 여러 개?... 美 ‘지하철 서핑’ 유행에 10대 사망 잇따라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는 이른바 ‘지하철 서핑’ 유행이 최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국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지하철 서핑을 시도하려다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뉴욕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지하철 서핑 관련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81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미국 CNN이 지난 2일 보도했다. 지난 해 같은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5명, 체포자 118명을 넘겼다.



지난 3일 뉴욕 퀸즈에서는 10대 소년 2명이 달리는 기차 위에서 지하철 서핑을 하다 균형을 잃고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23일에도 13세 소년 1명이 퀸즈에서 지하철 서핑을 하다 사망했다. 그는 지하철 서핑을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지하철 서핑은 수년 전부터 지속된 유행이다. 최근에는 SNS에서 지하철 서핑을 자랑하는 영상이 큰 인기를 얻으며 모방 행위가 급증했다. 뉴욕 지하철은 최대 시속 50마일(약 80km)로 달린다. 뉴욕시는 지하철 서퍼가 발

견되면 현장 팀이 출동해 다음 역에서 열차를 멈추고 그들을 하차시킬 뿐 따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현지 경찰도 “지하철 서핑 행위자에 대해 체포를 우선시하지 않고 있다”고 CNN에 설명했다.

현지에서는 지하철 서핑 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뉴욕 경찰은 “스릴을 추구하는 이 위험한 행동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지하철 서핑은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지하철 서핑을 막기 위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과 협력해 지하철 서핑 관련 영상 1만 개를 삭제했다. 미국 전역 주 법무장관 14명은 이 챌린지가 위험한 행동을 조장한다며 틱톡을 고소했다.

말 비꾼 美 족집게 통계학자 “해리스 승률 50.015%”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자 예측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분석에서 초점을 이어갔다. 일부 시뮬레이션 모델은 트럼프의 우세를 해리스의 미세한 승리로 예측값을 변경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5일 자사의 마지막 미국 대선 예측 시뮬레이션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승률이 각각 50%씩으로 동률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해리스의 승률이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트럼프의 경우 1%포인트 빠졌다.

이코노미스트의 선거인단 예측 시뮬레이션의 중간값에서는 해리스가 270명을 확보해 트럼프(268명)를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270명은 전체 선거인단인 538명 중 승리를 위해 필요한 과반의 최소치, 이른바 ‘매직넘버’에 해당하는 숫자다.

두 후보는 선거인단을 269명씩 동수로 확보하면 연방 하원 투표를 통해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된다. 미국에서 ‘족집게 통계학자’로 불리는 네이트 실버도 마지막 예측에서는 트럼프의 우세를 전망을 뒤집고 해리스의 근소한 승리를 제시했다. 그는 이날 0시 마지막으로 8만회를 구동한 대선 예측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해리스가 4번12회(승률 50.015%)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시뮬레이션을 4만회씩 실행하지만, 이번에는 2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버는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5%로, 해리스의 승률보다 높다”며 “우리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두 후보의 승부는 동전 던지기보다 박빙”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치매체 더힐은 4일까지 최근 348개 여론조사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48.4%씩 동률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개혁신의 윤리학(5)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V. 율법주의(legalism)와 율법폐기주의(antinomianism)

성경적인 기독교 윤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반율법주의)의 잘못을 알아야 한다.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라는 용어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관한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된다고 가르친다. 율법폐기주의(도덕법 폐기주의, 혹은 반율법주의)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도덕법 (즉, 십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A. 율법주의 (legalism)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의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가르침과 삶을 책망하셨다 (마 23:4; 눅 18:9).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를 오염시킨 잘못된 교리인 율법주의에 맞서 싸우면서 복음을 단호하게 사수했다(갈 1-3; 딤후 1:6-7).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수도원 금욕주의, 참회 제도 (penitential system), 성례전주의 (sacramentalism) 및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로마 카톨릭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성경적 교리를 부인하며,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선행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율법주의는 인간이 만든 규범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골 2:20-23).

최근 수십 년 동안 “바울에 대한 새 관점”(New Perspective(s) on Paul)의 지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최종적인 의로운 신분(final right standing before God)이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바울의 새 관점”의 주제는 아래의 별도의 제목으로 자세하게 다루겠다).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와 같은 종교는 인간이 선한 행위로 인해 천국에 들

어가거나 열반을 경험하는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비기독교적인 형태의 율법주의이다.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으려는 시도이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God’s approval)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마틴 루터는 1517년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믿음 (sola fide)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개신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것은 구원이 믿음과 선행을 통해서 온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의 구원 교리를 거부하고, 성경적인 칭의 교리를 재확립한 위대한 일이었다. 갈 3: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면 율법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R.C. Sproul의 “three forms of legalism” 을 요약한다).

1.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초점을 맞춘다. (Focusing on God’s laws more than relationship with God).

율법주의자는 규율을 준수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더 넓은 맥락을 파괴시킨다. “(destroying the broader context of God’s love and redemption in which He gave His law in the first place).”

2.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 없이 외적인 법을 지킨다 (Keeping external laws without a truly submitted heart).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상황을 무시한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킨다.

3.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인간의 규칙을 추가시키고,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취급한다. (Adding human rules to God’s laws and treating them as divine).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점을 책망하셨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신 것들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 성도들은 행동 (순종)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생활에는 율법주의와 관계없는 바른 순종이 있어야한다(엡 2:8-10).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벗어난 자유의 방종(an abuse of Christian freedom)이다. 요한복음 15:14,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우리의 칭의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원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

나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거나,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 순종한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지, 구원의 방식이 아니다(Obedience is how Christians should live, not how they are saved).

루터는 “매일 묵상 집”(A daily Devotional)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 “우리는 선행과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선행과 순종)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르쳐야 한다. 문제는 선행과 사랑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이다.”(how we should live, not how we are justified).

바울의 새 관점 (The New Perspective on Paul)

바울의 새 관점 (The New Perspective on Paul)은 E. P. 샌더스 (E. P. Sanders)가 1977년에 출판한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Paul and Palestinian Judaism)에서 시작되었다. 종교개혁 이후 전통적인 개신교의 관점은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함

교는 “율법적 공동체 (legalistic community)”도 아니었고 “행위에 의한 구원 (salvation by works)”을 지향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었다. 개신교의 믿음과는 달리, 그들이 율법을 따르는 것은 언약을 맺는 방법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었다 (following the Law was not a way of entering the covenant, but of staying within it) 주장했다.

그리고 제임스 던 (James Dunn)에 의하면, 성경학 신학자 N. T. 라이트 (Wright)가 1978년 틴데일(Tyndale) 강의에서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N.T. 라이트 (Wright)는 “새로운 관점”의 대중화를 위하여 수많은 작품을 저술했다.

바울의 새로운 관점에 따르면, 칭의에 대한 전통적 개신교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새 관점을 주장하는 자들은 바울이 행위의 의 (works-righteousness)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유대인의 경계 표시”(Jewish boundary markers in the New Testament people of God)를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새 관점을 주장하는 자들은 신약성경의 유대적 맥락이 잘못 이해되었고, 이 잘못이 칭의에 대한 전통적 개신교의 이해에 오류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관점에 따르면, 유대인의 구원 체계는 행위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적 율법주의, 즉 사람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고 언약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한다(one enters the people of God by grace and stays in through obedience to the covenant).

이것은 바울이 “율법의 행위”(works of the law)라는 표현으로, 행위의 의 (works-righteousness)를 언급할 수 없었다고 한다. 대신 그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유대인의 경계 표시(Jewish boundary markers)를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유대적 맥락(the Jewish context)에 대한 새 관점의 재구성 (reconstruction)이 전혀 정확하지 않으며, 신약에서 바울이 반대하는 행위를 통한 의 (works-righteousness)의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가 칭의에 대한 전통적 개신교의 이해를 지지한다.

(다음 호에 “바울의 새로운 관점”이 계속됩니다.)

KHL0206@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아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 6:00(토)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 일 3부예배: 오후 12:00
청년가예배: 오후 12:00
영 아예배: 오전 10:0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00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와 찬양: 오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 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 아예배: 오전 02:00
청년예배: 오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문찬: 오전 10:00 화,토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 일 1부 오전 7:30분
주 일 2부 오후 1:15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영 아예배 오후 2:45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별주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화: 오전 6:00 (월-토)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 일 1부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주 일 1부예배: 오전 7:15
주 일 2부예배: 오전 9:00
주 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영아예배: 오전 11:15
청년회: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월-토)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 일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화: 오전 5:40(화-금)
금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화: 오후 8:30 (매주 1주, 3주)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아예배 (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 오전 5:45
교회인문학강좌: 매주 토요일 오전 9:3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 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가나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 일 1부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찬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 일 1부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종보기도회: 매일 저녁,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영양기도회: 매월 둘째(금)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현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 일 1부예배: 오전 11:00
창립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화: 오전 5:40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 일 1부예배: 오전 9:3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화: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 일 1부예배: 오전 9:00
주 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 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 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화: 오후 5: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 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2부예배: 오후 3:00
주 일 3부예배: 오후 5:00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2024년 월드시리즈 1차전 경기를 할 때 우리 부부는 동네에 사는 친구 부부와 함께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월드시리즈 야구경기를 본다고 그런지 평소보다는 좀 더 한산하고 조용했습니다. 걸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 부

면서 다저스를 응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대답이 "평소에 야구를 챙겨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더구나 다저스팀에 한국 선수도 없어서 별로 흥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 다저스팀에 박찬호 선수라든지 류현진 선수가 있을 때는 다저스 경기장도 찾아가서 응원도 하고, TV 중계 경기도 열심히 챙겨서 보았는데, 지금은 한국 선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동감하며 "한국 선수가 없으니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관심이 없다 보니 다저스와 양키스의 월드시리즈 결승 경기가 43년 만에 가지게 되는데도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저스팀에 한국계 선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가 한국 사람인 '타미인지 토미인지'라는 선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저스팀에 한국계 선수가 있다는 말에 월드시리즈의 경기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걷기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TV를 켜니 다저스의 9회 말 공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2대2였습니다. 10회 초에 양키스가 1점을 추가하여 3대 2로 역전을 하였습니다. 10회 말 다저스의 9번 타자로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원 아웃에 1루에 다저스 선수가 출루해 있습니다. 양키스는 에드먼 선수를 상대로 더블 아웃을 잡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드먼 선수는 내야 안타를 치고 출루하여 다저스팀에 역전 승리에 대한 발판을 만들어 갑니다. 에드먼 선수의 뒤를 이어서 나온 3번 타자 프레디 프리먼 선

수가 122년 월드시리즈 역사 최초 끝내기 만루 홈런을칩니다. 다저스가 양키스를 상대로 1차전을 6대 3으로 역전승합니다. 월드시리즈 1차전 경기가 너무나 극적인 경기여서 계속해서 월드시리즈 경기를 보게 되었는데 나의 관심은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에 있었습니다. 다저스팀에 에드먼 선수가 없었다면 나는 월드시리즈 경기를 매 경기마다 시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계 에드먼 선수가 다저스팀에 있었기에 월드시리즈 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시간을 내게 됩니다.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헌신하게 됩니다.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노력하게 됩니다.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나의 삶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항상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yosupbois@gmail.com



제2회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2회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 성료

“모든 강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것”

미주복음방송과 나성영락교회가 공동주최한 '제2회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25일(금)부터 26일(토)까지 이틀간 나성영락교회에서 "Walking Together in Christ"라는 주제로 상황리에 열렸다. 캐나다 및 미 지역 13개주, 46개 교회와 기관에서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수진, 학부모 대표 등 교회사역자 외에도 전문강연자 22명이 참여하여 2개의 세션 강연을 동시에 진행해 발달장애 사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었다.

행사 첫날인 10월 25일, SOAR Special Needs의 스테판 닥 헌슬리 박사가 'Disability 101 - Intense Ministry Dive'라는 주제로 Pre-Conference 강연을 열며 장애인 사역의 기초와 실제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개막식에서는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 목사의 환영사와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캘리포니아 침례대학교 제프 맥네어 교수는 '장애인과의 함께 걸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성경적 원칙에 따라 장애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교회 내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

어 갈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어 진행된 기조연설에서는 ANC 온누리교회 김태형 목사가 "장애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함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20여 년간 장애를 가진 딸을 양육하는 동안 느꼈던 슬픔과 좌절 동시에 소망과 감사를 진솔하게 고백해 참가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었다.

둘째 날의 시작을 여는 강연으로 29년 동안 장애사역을 섬겨온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장애 및 포용 사역의 디렉터 제니 본 토벨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들을 나누었고, 칼스테이트 LA 특수교육학과의 김효선(크리스티나 김) 교수는 'Working(사역)'과 'Walking(사역으로의 과정)'의 차이에 대해 강조하며 당장의 결과나 보상보다 멀리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장애사역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첫번째 세션 강의로 안송주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학부 및 다국어 트랙 학장), 에이미 캔달(마리너스 교회의 장애부서 리더), 백진숙 대표(Being Built Together 대표)등이 말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뉴저지조대교회의 추민지 전도사가 장

애인 및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방향 및 방법을 제시했다. 추필립 대표는 장애인 행동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나성영락교회의 장애부서를 담당하는 이준혁 목사는 장애부서의 성례전에 대해 설명했다. 찬양사역자 배주은의 찬양을 통해 열린 2부 순서는 북미 주개혁교회 Thrive Agency의 린지 위랜드 카펠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노인 성도들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했으며 제프 맥네어 교수는 교회 내 장애인의 존재가 더 큰 기독교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고, 베일리 라캄브라(The Grove Community Church)는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회의 지원과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선리 전도사가 강연자들과 패널토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폐회 예배에서 스테판 닥 헌슬리 박사는 'Belonging Church'가 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회가 장애 가정과 협력하여 그들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 한인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의 모든 강연은 미주복음방송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컨퍼런스 자료집은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churchconference.org)에서 볼 수 있다.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온라인 화상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대화장 정윤명 GIM 대표

제17회 GIM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

제17회 GIM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 East-Bay 지역의 Brentwood Bible Fellowship 교회(담임목사 Lance Millar)에서 10월 27일(주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에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로 열

렸다. GIM(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 대화장 정윤명 목사)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역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OC지역 원로초청 시니어 페스티벌이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렸다

OC지역 원로초청 시니어 페스티벌 열려

오렌지카운티 지역 원로초청 시니어 페스티벌이 11월2일(토) 오전 10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OC교협(회장 심상은 목사), OC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 OC여성목사회(회장 김선옥 목사), OC장로협의회(회장

배기호 장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공동주최로 열린 시니어 페스티벌은 1부 감사예배, 2부 건강세미나, 3부 음악과 함께, 경품 및 광고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남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1부 감사예배

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였다. 미국 주류교회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타이완, 홍콩, 이란, 티벳, 중국,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민족이 화상으로 모여 미국과 한국 등 열방의 회개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중요한 기도 요청을 받아가며 진행되었다. 정 윤명 대화장의 개회사로 개막된 컨퍼런스에서는 한반도 이슈를 비롯해 전쟁으로 심각한 재난속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북음의 사역이 탄압당하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인도네시아 등의 박해지역,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각 지역 등을 향한 긴급기도 요청이 발표되고 성경적인 외침과 방향 제시가 있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는 배기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심상은 목사가 환영의 말씀을 전했고 이원석 목사가 축복기도했다. 윤우경 권사(사람과 사회 발행인) 사회로 열린 2부 건강세미나는 샌타메디컬 크리닉 내과 전문의 임유일 주치의, 윤스마일 치과 크리스 윤 원장, 써니싸이드 찰스 안 대표, 김유미 애나하임 양로병원 매니저, 신용 호스피스 마케팅 팀장이 강의했다. 신용 집사 사회로 열린 3부 음악과 함께 시간은 무궁화여성합창단(지휘 지경), 코람데오 시니어 중창단(지휘한진영), 아리랑합창단(지휘김정민), 솔라혼성합창단(지휘김명옥) 조이어서 찬양단(단장 박종희 목사)가 출연하여 공연했다. 이어 시니어모델 한복패션쇼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양금호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자원위원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Hisfinger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문화출판사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실시간 진행협의
출판사로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립니다.
상담 건적 계약 이후 모든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저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출판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플레루 Fleru 김성국 목사 신간 걸림질



동부교계 게시판

미드웨스턴 이상환 교수 “신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미드웨스턴 이상환 교수는 11월 11일 저녁 6시부터 뉴저지 잉글우드 구세군 한인교회(최다니엘 사관 시무)에서 “신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일차 독자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공개강좌 신청 링크: <https://forms.office.com/r/nPAPWmMrQa>

▲ 문의: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KS@mbts.edu)

뉴욕살롱교회, 제2회 영성클리닉

뉴욕살롱교회(담임 양미림 목사)는 최광천 목사를 초청하여 11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오후 2시, 7시30분에 영성클리닉을 개최한다.

▲ 문의: 646-207-7525

필라영생장로교회, 카리스 듀오 피아노 연주회

김기영&김현주 집사의 포텐트 피아노 두번째 연주회가 11월 17일 오후 3시 필라영생장로교회(시무 정승환 목사) 제 1 예배당에서 열린다. 연주회 관람은 무료이다.

▲ 문의: 215-542-0288

워싱턴지구총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예배

워싱턴지구총교회(담임 박승진 목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11월 10일 오후 3시 본교회에서 기념예배 및 안수집사 안수식, 파송선교사 임명식을 갖는다.

▲ 문의: 301-460-1656

뉴저지 밀알 30주년 기념 제20회 밀알 추수 감사절 디너

뉴저지밀알선교단(단장 강원호 목사)은 세계 십자가 선교회 회장 안일권 목사를 초청하여 11월 30일(토) 오후 6시 더블트리 호텔(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에서 뉴저지 밀알 30주년 기념 및 제 20회 밀알추수감사절디너를 개최한다. 티켓은 150불이다.

▲ 문의: 201-530-0355, 201-638-5148

지형은 목사와 함께하는 동네세메줄 성경세미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까지의 가르침”



지형은 목사와 함께하는 동네세메줄 성경세미나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했다

뉴욕한인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지형은 목사(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와 함께하는 동네세메줄 성경세미나를 11월 4일(월)부터 5일(화)까지 쿼츠한인교회(시무 김바나바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한필상 목사 인도, 황하균 목사 기도, 정관호 목사의 강사소개 후 진행된 세미나는 지형은 목사가 말씀 묵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 존재의 근거 그리고 목회자의 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를 목회 현장에서 철저히 실천하지 못한 것에 책망을 받았다. 그 결과 ‘동네세메줄 성경’ 구상을 받으며 2022년 5월에 ‘동네세메줄성경’ 구약 7권 신약 3권으로 총 10권의 성경 전체를 편집 출간했다”고 전했다. 또한 “동네세메줄 성경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메모, 즐긔기’ 다섯 개의 첫 단어를 따서 ‘동네세메줄’이라고 지었다. 왼쪽 두 단어로 된 성경말씀에 자유롭게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세모나

네모로 표시하며 줄도 긋고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으며, 오른쪽 페이지는 여백에 정리하고 묵상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지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으로, 성경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다. 이를 위해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며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목회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사역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함을 깊이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며,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동네세메줄 성경 5(시편,잠언,전도서,아가)를 제공했다.

(홍현숙 기자)



몽골어로 찬양 드리는 워싱턴 몽골교회 형제, 자매들

앤산 기도원, 제3회 추수 감사 찬양 콘서트와 감사만찬

색소폰 독주, 찬미찬양단, 메릴랜드기독교합창단 등 참여

안나산 기도원(원장 김영창 목사)이 주최하고, 웨사픽신학대학원(총장 김병은 목사)이 주관하는 “제3회 추수 감사 찬양 콘서트와 감사만찬”이 10월 27일 (주일) 오후 6시 안나산기도원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열기를 더했다.

김성훈 목사(헤리티지 신학대 교수)의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리라”로 시작된 찬양의 시간을 가진 후, 윤병남 목사(풍성한교회 담임)의 찬양 콘서트를 위한 기도가 들려졌고, 이인갑 장로(MD 기독교합창단 단장)가 “내 주를 가까이” 색소폰 독주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줬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에는 부모와 다섯 자녀로 구성된 “찬미찬양단”이 초대되어 피아노 3중주(피아노 이성미, 바이올린 이찬미, 첼로 이찬민)를 연주하였고, 아들 이찬희의 트럼펫 연주와 더불어 바리톤 이성진의 “담대하라” 독창이 이어지면서 음악가족의 단란함과 멋을 선보이며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일깨워주었다.

사회를 맡은 차용호 목사(센터빌한인장로교회,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 증경회장, CTS 이사)로부터 “이 지역에

많은 합창단이 있지만 그래도 단연 메릴랜드 기독교합창단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는 찬사와 함께 마지막 순서로 등장한 메릴랜드 기독교합창단(단장 이인갑 장로, 지휘 안영수 박사, 반주 권기선 박사)에서는 “눈을 주님께 돌려”, “날 사랑하심”,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찬양의 기쁨”,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을 격조 높게 합창하면서, 이번 찬양 Concert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워싱턴 몽골교회(황필남 선교사 담임)의 몽골리안 형제, 자매들도 참여하여서 몽골어로 드리는 찬양을 들으며 청중들은 기뻐하며 환호하였다.

안나산 기도원 김영창 원장은 “찬양 콘서트를 3회째 계속 이어올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참여 찬양 단체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광은 목사(우리주님의 교회, 웨사픽신학대학원 교수)의 광고와 정우용 목사(메릴랜드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Fall Family Festival에서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

퀸즈장로교회, 2023 Fall Family Festival 개최

할로윈을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Christ the King”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할로윈 데이였던 10월 31일(목) 오후 5시 30분부터 퀸즈장로교회 교육부(담당 차평화 목사)에서 준비한 Fall Family Festival(가을가족축제)을 “Christ the King”이라는 주제 아래 개최했다.

늦은 가을 화창하고 선선한 날씨 가운데 성도들과 자녀들 뿐 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 초청했던 외부에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많은 인파가 세상의 할로윈이 아닌 교회에서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매년 할로윈이면 개최해 왔던 이전 행사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저녁 식사 매뉴들이 더욱 다양해졌다. 퀸즈장로교회 다민족 사역 별로 한국어권 불고기 뭇밥, 영어 예배부 핫도그, 중국어 예배부 볶음국수, 러시아어 예배부 러시아인 쌀사, 청년부 타코야키를 식사로 무료 제공했으며 그 외에도 팝콘, 솜사탕, 각종 캔디 등의 간식들과 함께 풍선, 머리핀, 목걸이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바운스 하우스와 미끄럼틀을 설치했으며 그 외 다양한 게임들을 통해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퀸

즈장로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경 이야기 들을 테마로 제작한 다양한 게임들을 통해 성경적 메시지를 외부인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에는 새롭게 주차장에 공연 무대를 세워 라이브 찬양 음악을 연주했으며 부채춤, 국악찬양, 하모니카, 바이올린 연주, 성악, 북 난타 공연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저녁 7시부터는 예배를 위해 교회 본당으로 장소를 이동해 퀸즈장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신나는 찬양과 바디워십을 진행했고, 김도현 목사(영어 예배부)가 “Children of Light (에베소서 5:8-9)”를 주제로 한 설교를 통해 참석한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 된 삶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려야 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다 함께 찬양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김도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던 래플 상상을 통해 준비한 다양한 선물들과 구디백을 어린이들에게 나눠줬다.

(김재상 기자)



고 한재홍 목사

한재홍 목사, 향년 81세 주님의 품으로...

교계와 교민 단체에서 헌신해 오던 한재홍 목사가 11월 3일 오후 5시 3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재홍 목사는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M.Div),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D.Min)를 졸업했으며 트랜톤장로교회와 상향개혁장로교회를 개척했고 뉴욕신광교회를 개척 후 28년간 담임했다. 교계단체로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장,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뉴욕청소년센터대표, 미주기독교방송국사장, 기독교인협회장, 뉴욕성신클럽회장, 이승만박사기념

사업회장, 뉴욕실버선교회이사장, 아이티뉴욕기독교연합선교회장, 겨레사랑미주동부지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재홍 목사를 기리며, 천국 환송예배는 11월 5일(화) 오후 7시30분, 발인예배 6일(수) 오전 9시30분 뉴욕신광교회 교회장으로 열려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민영숙, 장남 한은석 (자부 이미현) 손녀 한희주, 차남 한명석, 장녀 한지혜 (자부 LaurentBenoit) 손녀 Valentine(은혜), 외손자 Achille(승리)가 있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 목사 11월 2024년 국내 외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제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영어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 (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 (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2(토) 오전 서울 레이크호텔(서충호수) 정요한 목사 010-2393-0616

4(월) 오후 한일기독교교회(이영준 목사)

5(화) 오후 주회: 열방선교회(홍재호 목사, 대표회장 허은혜 목사) 010-3028-1545

6(수) 오후 주회: 주한외교교회(배정수 목사)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7(목) 오후 서울 반석교회(고정호 목사) 010-2391-3004

8(금) 오후 화성 근영중앙교회(한영희 목사) 여성총재 추대 취임식 감사예배

9(토) 오후 주회: MIRACLE 국제선교회(대표회장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10(일) 오후 양산 한세교회(트리플교회성경세미나(대표 오광석 목사) 010-4444-1925

11(월) 오전 국제선교회(이사장 김영준 목사) 010-9260-1091

12(화~14) 주회: 서울기독교연합회관(Special Room)

13(수) 오후 주회: 7천용사 발대식(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총재 한요한 목사) 010-9578-0049

14(목) World Mission MT in Asia

15(금) 오전 전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그레이스홀

16(토) 오전 주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부총회장(상임회장 박경근 목사)

17(일) 오전 남양주 청조교회(김태곤 목사) 010-9492-1770

18(월) 오전 주회: 한국기독교153부흥사협의회(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대표총재 김태곤 목사)

19(화) 오전 동두천 영광교회(민용기 목사) 010-2254-3927 (최영광 목사) 010-2628-2002

20(수) 오전 서울대학교 ABK 사무국 총동창회 문화행사 장소: 서울예술의전당 Concert Hall

21(목) 서울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 주회: 한국기독교복음화운동본부

22(금) 오전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원준 목사) 010-5372-1691

23(토) 오후 오산리 국제금성기교회(김원준 목사) 주회: 성군자 목사

24(일) 오후 화성 근영중앙교회(한영희 목사)

25(월) 오후 미라클국제선교회 연합 축복성회

26(화) 성남 은총교회(노규에 목사) 010-3065-0658

27(수) 오후 양평 기독교신문교회(김영현 목사) 010-3394-9191

28(목)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믹스(사무총장 정재원) 010-9672-9700

29(금) 오전 서울 국제교육원(원장 장남철 박사) 010-2252-0675

30(토) 오전 청양 온누리교회(정민수 목사) 010-2408-1235

31(일) 오후 검단제일교회(장사무엘 목사) 010-7733-9106

25(월~26) 새생전 입장 Congratulatory Message

27(수) 주회: 동광제일교회(유창수 목사) 010-2067-8303

28(목) 제 242차 해외성회 (242th Overseas Assembly)

29(금) 미국(U.S.A) 뉴욕 케네디 공항 도착 AM10

30(토) 미국(U.S.A) 뉴욕지역 금요철야성회 장소: 뉴욕시광교회(최고선 목사)

31(일) 미국(U.S.A) 뉴욕 NYSKC World Mission NewYork지역 Revival Meeting

12(월) 미국(U.S.A) 뉴욕시광교회 주일성회(최고선 목사)

2(월) 미국(U.S.A) 뉴저지 지역 연합기도회 성회

3(화) 미국(U.S.A) 뉴저지 지역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

4(수) 미국(U.S.A) 뉴욕지역 한국7천기독교클럽 뉴욕기도회

5(목) 미국(U.S.A) Asiana AM 11:40 출발

6(금) 인천공항 17:00 도착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www.nasca.or.kr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코너스톤교회 에서 열린 할리웃 촬영 감독 스티븐 오 초청 전도 간증집회가 열렸다

코너스톤교회 할리웃 촬영 감독 스티븐 오 초청 전도 간증집회

“나를 위한 기도는 1%, 남을 위한 기도를 99% 올리자”

코너스톤교회(이종용 목사)가 창립 31주년을 맞아 11월 3일(일) 할리웃 촬영 감독 스티븐 오 초청 전도 간증집회를 오후 4시(한국)와 오후 7시(영국)에 개최했다. 스티븐 오(Stephen Oh) 집사는 ‘미션 임파서블 7’, ‘존워 4’, ‘스타워즈 9’, ‘007 노트임 투 다이’의 다수의 영화 촬영을 맡았던 할리웃 특수촬영감독이다. 스티븐 오 감독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다. 그 이유는 이 네 가지 표현에 내 모든 마음이 담겨있어서이다”라고 말했다. 오 감독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에서는 교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기독교가 악한 세상의 공격에 휘말려 침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세상이라는 영화의 감독이시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으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멜번에서 태어난 나는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대학생 때 스키를 타다가 다리가 크게 다쳐서 운동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휴학을 해야 했다. 더군다나 모르핀주사의 부작용으로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다”며 “당시 한국에서 촬영팀이 와서 일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되어 카메라를 잡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션임파서블 촬영할 때 바이크를 타고 베팅에 점프를 하는 장면을 제작할 때였다. 그 당시 모든 스태프들이 긴장상태였는데 나 혼자 긴장을 하지 않아 감독이 스티븐은 오늘 촬영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면서 자리를 옮기는데 순간 견딜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왔다. 나는 곧바로 숙소로 들어가 기도를 했는데 긴장이 풀리지 않아 내 아내와 교회에 중보기도를 부탁했고 그 기도로 인해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여러분도 매순간 가족과 교우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힘든 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착 할 때까지 8분20초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0초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루에 100가지의 기도를 한다면 나 자신의 기도는 1번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99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이종용 목사가 합성기도를 인도한 뒤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썬비치한인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가 OC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썬비치한인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 성료

썬비치한인합창단(단장 김형구 목사, 지휘 송규식 목사)는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11월2일(토) 오후 5시30분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열렸다. 김형구 단장은 “저희 합창단은 지난 2007년에 시작하여 17년이 되었으며 오늘 제12회 정기연주회를 열게 되었다”며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연주회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구 단장의 인사말과 김종규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정기연주회는 스그대

음에, 추억, 꽃 파는 아가씨 등 한국가곡, △그리움, 별 등 여성합창, △아리랑, 새야새야 사랑새야, 신고산 타령 등 우리민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내가 산을 향하여, 피난처와 힘 되신 주 등 현대성가, 네 개의 색채로 나뉜 진행되었다. 또한 바리톤 김경태, 소프라노 에스더 김이 진정우 박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특송했으며 나민주 목사가 클라리넷 연주로 이날 정기연주회를 빛내주었다. 이날 정기연주회는 교향의 봄을 애플곡으로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시전 동인들이 모여 시로 드리는 예배를 개최했다



권혁천 총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장으로 기도회

〈1면에서 계속〉
류인현 목사는 “교회의 위기, 다음세대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다.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도와주어야 한다. 믿고 맡겨주는 부분이 중요하다. 오늘날 교회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그것은 사랑의 위기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던가 가룟유다처럼 다른 생각을 할 때 위기가 찾아온다”고 말했다. 류 목사가, “본문에서 마리아의 헌신은 강요가 아닌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다. 주님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이 땅에서 준비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모든 영광은 어린양께 있도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윤석 목사(교육부, 뉴욕)의 인도로 시작된 기도회는 조웅철 목사(가주)가 ‘KAPC 산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궤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양경선 목사(남가주)가 ‘총회 산하 650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성일 목사(로스)가 ‘KAPC 총회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광형 목사(교육부, 서기)가 ‘미국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했다. 첫날 기도회는 양수철 목사(가주) 축도로 마쳤다.

△김관중 목사(남가주) 인도로 시작된 둘째 날 아침 기도회

는 조성백 목사(가주)가 기도했으며 김동수 목사(교육부, 뉴욕)가 ‘개혁주의의 경건과 권징’,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가 ‘교회의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김관중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둘째 날 저녁집회는 이준우 목사(가주) 기도, 사모합창단 특송, 안관진 목사(남가주) 성경봉독, 류인현 목사(류프론티어교회 담임, 팔라)의 ‘나의 해방일지(눅 9: 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장성철 목사(뉴잉)가 기도회를 인도한 뒤, 오세훈 목사(로스) 축도로 이어졌다. △셋째 날 아침은 이재석 목사(중남미)가 대표기도한 뒤 오정호 선교사가 ‘이민교회 현황에 대한 분석’, 박성일 목사(북미주동)가 ‘이민교회의 현실과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주제강의가 있었으며 김종규 목사(남가주) 인도로 기도회가 이어졌다.

△이동훈 목사(교육부, 목기) 인도로 시작된 셋째 날 저녁집회는 안병권 목사(남가주) 기도, 소프라노 박종희, 테너 최순식 특송, 남석진 목사(동가주) 성경봉독, 류인현 목사의 ‘흠, 스위트 흠(눅 15:11-1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동훈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했다.

△넷째 날 오전 장용호 목사 인도로 시작된 폐회예배는 한일경 목사(가주) 기도, 한석호 목사(남가주) 성경봉독, 한일철 목사(부총회장, 동남부)가 ‘이제는 열매 맺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장용호 목사 폐회인사와 권혁천 총회장 축도로 기도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19회 ‘시로 드리는 예배’ 열려

“문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진실한 예술”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인미 전도사)에서는 지난 10월 26일(토) ‘우리는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제19회 시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 카페 ‘헤이리’에서 열린 이날 모임은 큐티를 통한 시장작교실 가을학기가 개강되지 않아 수료생이 없는 가운데 동인들과 함께 ‘예수님 충만하네’란 찬양으로 개회되었다. 대표 이인미 시인은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의 예물을 19회나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간섭하심”이라고 감사했고 이날 설교한 신병욱 목사(LA미라클교회)는 시편 18: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 목사는 “담쟁이 잎 하나가 잎 수천개를 이끌고 벽을 넘는다. 인간의 의지와 신념으로 담을 넘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 하나님은 담을 넘게 해주셔서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주셨다”고 말하고 “시 작업에 몰두할 때 부딪히는 담인 인간적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시에 몸을 던져야 한다. 담을 넘어야 한다. 죽음으로 담을 넘어 부활과 영원의 감격을 익히게 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의 합주는 김선아 동인의 ‘찬바람을 보내며’ ‘그린로즈’, 이영숙 시인의 ‘그 날’ ‘응답하라’, 최명희 시인의 ‘인내의 꽃’ ‘이 가을’, 조미나 시인의 ‘너머의 시간’ ‘사랑이 지나가는 길’을 낭송했다. 이어 조미나 시인의 특송과 함께 정한나 시인의 등단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정한나 시인은 제 28회 에피포도문학 시부문 신인상 ‘도도리의 행복’의 2편으로 수상 등단했다. 에피포도문학 주관의 시상식 및 출판식은 내년에 있을 예정이다. 이를 축하하는 시 ‘그대는 하나님의 시인’이란 시가 낭송되었고 이인미 시인이 ‘하나님의 희어진 머리카락을 보내’를 낭송했다. 격려의 말씀을 전한 백승철 목사(에피포도문학대표, 사모하는 교회)는 “문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진실한 예술이다. 언어를 통해 작가의 미적 체험을 형상화한 것이다. 시를 위해 치열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모두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문학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신병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 문의: (818)590-6469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청빙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요건은 미국 침례교단인 인정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침례교단에서 목회안수를 받은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분(부교역자 경력 포함), 영어로 의사소통 및 설교가 가능한 미국체류 및 미국 내 목회에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는 본인이력서 (3개월 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포함),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 목회비전, 가족 소개 등), 추천서 2부와 설교 유튜브 링크 혹은 타웹사이트 링크 (3편 중 1편은 영어 설교)이며 12월31일까지 제출서류를 본 교회 이메일 kbcsj.offices@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408)257-544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창립 주일예배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창립 121주년 주일예배가 10일(주일) 예배시간에 갖는다.
▲ 문의: (808)526-7244

KPCA서중노회 청년연합컨퍼런스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 청년연합컨퍼런스가 9일(토) 오후12시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에서 열린다. ‘The Calling’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고현종 목사(디사이플교회 담임)이다.
▲ 문의: (626) 913-6611

UMC한인목회강화협의회 주최 AI시대의 목회 주제 세미나
연합감리교 한인목회강화협의회(회장 정희수 감독,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의 2024 KMP 웨비나 시리즈 “AI시대의 목회(AI in Ministry)가 11일(월) 낮 12시(퍼시픽 타임) 개최된다. 한인목회강화협의회와 UMC세계선교협의회(GBGM), 연합감리교도 교육국(GBHEM)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백영민 박사다.

찬양사역자 한웅재 김도현 미주투어
찬양사역자 한웅재 목사와 김도현 작곡가 미주투어가 10일(주일)부터 24일(주일)까지 열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일(주일) 임마누엘 선교교회 + 아이엠교회, 13일(수) 생수지의강 선교교회, 17일(주일) 새생명비전교회, 20일(수) 남가주동신교회, 22일(금) 복음장로교회, 24일(주일) 열반인 베렐교회
▲ 문의: aaronisao1191@gmail.com

Kid’s Celebration
CMF에서 주관하는 5회 Kid’s Celebration이 10일(주일)과 11일(월)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열린다. K-12 grade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Kid’s Celebration일정은 10일(주일) 오후3시부터 8시, 11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30분이며 등록비는 \$20 (둘째부터 \$10)
▲ 문의: (714)733-3566

오렌지한인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오렌지한인교회(담임 정유성 목사)는 창립 48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10일(주일) 오후 2시에 갖는다.
▲ 문의: (714)871-8320

위탁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윈터 케어팩 캠페인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가 위탁 가정 아이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위탁 아동들을 위한 윈터 케어팩’ 캠페인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으로는 위탁 아동들에게 필요한 기본 용품을 담은 ‘윈터 케어팩’을 마련해 11월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랑의 윈터 케어팩’은 위탁아동들의 나이에 맞춘 겨울 필수 용품들로 구성 돼, 연령별로 준비될 예정이다.
후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인가정상담소 웹사이트(https://www.kfam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원에 대한 문의: ykim@kfamla.org



비전케어 미주서부 주최 LA사랑의 아이캠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비전케어 미주서부 주최 LA사랑의 아이캠프 열어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VCS West·이사장 서영석)는 오는 11월 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LA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사랑의 아이캠프’ 행사를 개최했다. 강진웅 목사(갈보리 믿음교회 담임)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아이캠프는 눈 질환이 있거나 백내장으로 형편이 어려워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에게 무료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진 결과 백내장이 심각한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자에

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안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안경을 무료로 맞출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사에는 켈빈 잉 안과전문의, 리사 황 안과전문의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으며 비전케어 미주서부 이사 및 유니페케이션 라이온스클럽, 브릴리언트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감리교회” ...

김정석 감독회장 시무예배

“감리교회 안에 3000여 교회가 미자립교회입니다. 한 해 예산이 4000만원이 안 됩니다. 이들에겐 사는 것, 생존 그 자체가 절실합니다. (중략) 기갑 본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함께 더불어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는 4일 오전 9시 서울 광화문빌딩 16층 본부교회에서 ‘김정석 감독회장 시무예배’를 드렸다.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가운데 2절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와 3절 ‘이름 없

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를 함께 부르며 본부 직원들은 직무의 엄중함을 다시 떠올렸다. 4년 임기의 직무를 시작한 김 감독회장은 로마서 15장 1~6절을 바탕으로 ‘예수 안에 있는 강한 인생’ 제목의 말씀을 나눴다. 김 감독회장은 설교를 통해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감리교회를 강조했다.

김 감독회장은 신학자 폴 틸리히가 언급한 공허함 죄책감 공포감 등 현대인이 느끼는 세 가지 실존적 고민을 소개하며 그리스도인은 이를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롭

고,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함을 덧입었으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 사망 의식에 충실하고, 최후 승리를 믿는 삶을 산다고 밝혔다.

김 감독회장은 본부 직원들에게 “교단 안에서부터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보듬고 격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다. 개체 교회를 섬기며 기갑 본부를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시원하게 풀어주자고 독려했다. 김 감독회장은 6400여 교회와 1만 1000여 목회자, 110만명 넘는 감리교회 성도들을 위해 축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했다.

예배에선 행정기획실장 서리로 임명된 함영석(68) 목사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함 목사는 서울신학대 학부와 감리교신학대 선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감리교 본부에서 다양한 본부 행정을 경험했고 직전에는 총회 재정유관해석위원장을 맡았다.

기갑 본부는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의 총무와 도서출판 kmc 사장 선출을 위한 후보 지원을 8일까지 받고 있다. 4년 임기의 총무직은 기갑 본부의 세부 행정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광화문 본부 이전, 은급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전문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인천 쿼어축제 반대 집회 개최...

“공공장소 쿼어집회 강력히 반대”

인천기독교총연합회(인기총·총회장 주승중 목사)는 지난 2일 인천시 부평역 광장에서 ‘2024년 인천퀴어반대집회’를 열고 인천퀴어축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약 18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였으며, 예배와 기도회, 시가행진, 전문가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주승중 목사는 대회사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문화와 사회의 건강한 윤리

질서를 훼손하는 동성애 쿼어 축제에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며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은 헌법을 위배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며 “동성애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사회의 도덕과 질서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도회에서는 정일량 목사

등 주요 인사들이 나서 ▲동성커플의 법적 인정 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비윤리적 동성애 쿼어 축제 저지 등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

곽두희 인기총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부평에서 열린 예정인 제7회 인천퀴어집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평광장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누려야 할 공간이며, 성소수자를 혐오하지 않지만 공공장소에서 쿼어집회가 열리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곽 사무총장은 또한 인천퀴어조직위원회가 부평구청의 조례에 따른 광장 사용 신청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행사를 강행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부평구청의 행정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인천 시민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쿼어집회의 공공장소 개최를 반대하며, 청소년들이 음란한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기총은 인천 시민과 단체들이 협력해 건강하고 질서 있는 지역사회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대책 없는 인생, 기도가 대책이다”

정암 박윤선에게서 교회 갈 길 찾다

“기도에 살길이 있다”, “대책 없는 인생, 기도가 대책이다”, “돌아다니는 폭풍이 되자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돼라.” 정암 박윤선(1905~1988) 목사가 생전 강조한 기도 철학이다. 한국의 대표적 1세대 칼뱅주의 신학자인 정암의 기도론과 성경론 등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합신) 정암신학연구소(소장 안상혁 교수)가 5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지구촌교회(김형석 목사) 사랑채플에서 연 제36회 정암신학강좌이다. 주제는 ‘정암 박윤선의 변증과 기도’였다. 합신 총장을 지낸 정창균 교수는 먼저 “현대의 신자들, 특히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내려놓고 ‘기획’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잘못

된 현상이다”며 “신자들이 감동적인 간증이나 찬양행사 등에 관심을 쏟으며 무엇인가 마음을 짜릿하게 해주는 감동을 추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고 현 세태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앞선 정암의 외침을 소개하며, “정암이 강조했듯이 시대에요 기도에 살길이 있으며, 대책이 없을 때도 기도가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암은 기도의 사람임과 동시에 기도를 강조하고 가르친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정암이 펼친 개혁 운동의 핵심적인 방편은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정암은 기도를 이것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동력이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어 생전 정암이 강조하고 실천하려 했던 ‘전제(專制)주의적 변증’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제주의적 변증은 코넬리우스 밴틸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가 주장한 기독교 변증학의 하나로 기독교 믿음이 이성적 사고를 위한 유일한 기초라고 믿는다. 이 변증은 정암이 주장한, 계시로서 성경만을 의존해 신학적 사고를 만들어낸다는 계시의존사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교수는 현시대를 “넓게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태도가 성행하고, 좁게 변증에서는 밴틸 교수가 그렇게 변증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 소위 ‘고전적 변증’이 주류가 된 시대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바울 합신 교수가 스위스와 독일에서 활동한 신학자 칼 바르트(1886~1968)의 신론, 기독교론, 창조론에 관한 정암의 비평이 갖는 의미를 살펴봤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합신 총동문회장 안두의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바른 신학보다는 변영신학의 노예가 됐고, 바른 교회보다는 기복주의에 젖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상실했으며 바른 생활이 아닌 교역자들과 교인들이 영적·도덕적·윤리적으로 타락된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때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정암이 남긴 삶의 흔적을 함께 기억하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지구촌교회, ‘케냐 메가 메트로’ 프로젝트 전개

케냐 목회자 8명 초청 교회 사역에 대한 통찰 전수

한국과 아프리카 케냐 목회자들이 교제를 나누며 협력하는 장이 마련됐다.

지구촌교회는 아프리카 케냐 목회자들을 초청한 ‘케냐 메가 메트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구촌교회 2대 담임목사를 지낸 진재혁 케냐 선교사와 함께하는 프로젝

트로 케냐에서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를 섬기는 현지 목회자 8명이 한국교회를 탐방하며 교회 사역에 대한 통찰력을 배우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프로젝트는 5일까지 이어진다. 지구촌교회는 지난 7월 초 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케냐에서 ‘설립 30주년 블

레스 케냐 G.P.S(Global Pastors Summit)’를 교회 설립자인 이동원 원로목사와 함께 진행했다.

이번 케냐 목회자들의 한국 방문은 ‘블레스 케냐 G.P.S’의 후속 사업으로 지구촌교회를 비롯해 광림교회, 선한목자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만나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은누리교회, 부산 포도원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사랑의교회 등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여러 교회와 신학교 등을 탐방한다.

이동원 원로목사는 진 목사 와 케냐 목회자들을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로 초대했다. 그는 최근 1박 2일간 진행된 ‘천로역정 순례의 길’에서 순례자의 영성과 함께 한국교회의 부흥과 역사 등을 나눴다(사진). 후배 목회자들의 사역에 대한 어려움을 들으며 선배 목회자로서 다양한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깨끗한 물로 피어나는 희망”

파마킹, 11년째 아프리카에 식수 지원



제약기업 파마킹이 11년째 이어온 기부를 통해 아프리카 9개 마을, 약 2000명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했다고 5일 월드휴먼브리지(총장 김진섭)가 전했다. 파마킹 임직원들이 월드휴먼브리지를 통해 2013년부터 꾸준히 참여해 온 자발적 기부는 올해까지 누적 2억원에 달한다.

월드휴먼브리지는 “파마킹의

후원금이 아프리카 식수지원 외에도 국내 아동지원사업과 해외 의약품 지원에 쓰이며, 국내의 소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리카 식수지원 사업은 단순히 우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현지 주민들이 물 관리와 위생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 마을 물관리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했다.

김완배 파마킹 회장은 “깨끗한 물은 건강한 삶의 씨앗”이라며 “신약개발로 생명을 살리는 기업 이념처럼 맑은 물 한 방울로 아프리카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깊은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전신마비에도 꿈꾼 사명, 14년간 지킨 사랑

개척 1주년 맞아, 다음세대 사역자들 배출 꿈꿔

인천 너나들이교회 김신웅(사진 왼쪽·42) 목사, 김혜정(오른쪽·41) 사모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김 목사는 희귀 유전질환인 척수성 근위축(SMA)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 2010년 그와 결혼한 김 사모가 언제나 그의 손과 발이 돼 주고 있다.

4일 서울 용산구 한 카페에서 김 목사 부부를 만났다.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김 목사의 유쾌했던 말솜씨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신대원 재학 중

좌절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말을 하면서도 담담했던 그가 울컥한 건 아내 이 아기를 할 때였다.

“아내에게는 고마움이나 사랑과 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정이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온종일 함께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김 사모는 김 목사가 청년부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로 처음 만났다. 수련회에

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뒤 김 목사가 앞으로 하게 될 목회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결혼 직후엔 남편을 옮겨주다 넘어지면서 남편이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힘든 건 육장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주느라 동장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목회에 충실할 수 있어 감사하죠. 무엇보다 남편과 같이 있으면 항상 웃게 되고 행복해요.”(김 사모)

너나들이교회는 이달 개척 1주년을 맞았다. 김 목사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마우스를 움직여가며 설교를 준비한다. 모든 책은 스캔해 노트북

mission 선교의 창 (249)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와 문화의 상관 관계

인간은 누구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 그것은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것과 자라면서 후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 이는 마치 공기와 비슷하다. 우리는 시시각각 호흡하지만 공기를 잘 의식하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문화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간 기독교 선교를 돌아보면 타문화 이해 면에서 너무 취약했었다. 선교학자 브루스 니콜스(Bruce Nicholls)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인간문화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음의 순결성(the purity of the gospel)을 지키려는 열의에 차서 정작 복음을 듣는 자들의 관습, 사고 패턴, 가치 체계, 행동 양식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치 못할 때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질타는 마치 한인 선교사들을 향해하는 말처럼 느껴진다. 타문화권은 우리가 낯고 자란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연장 선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자세로 현지 토착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영적이면서도 문화적인 인간

세계에는 약 24,000 종족이 있다. 이들은 지역과 종교, 인종에 따라 얼굴 모양, 신체, 피부 색깔, 언어, 음식, 종교의식, 예절, 가치관, 관습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1974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 복음화대회에서 작성된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은 인간 문화와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인간의 문화 속에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 분명히 있다. 또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에 죄로 오염(tinted)되어 인간문화 속에는 사탄적(demonic) 요소들도 있다.” 이렇듯 문화는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그들이 태어나서 사회화되는 전통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문화는 생물학적이고 환경적

지고 있다. 인사의 형식은 그 나라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 표현방식을 통해 그들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인사법이 악수이다. 고대 바빌론에서는 신성한 힘이 인간의 손에 전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통치자가 성상(聖像)의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중세 때는 기사들이 칼을 차고 다니곤 했는데 상대방과 싸울 의사가 없을 때는 손에

짙 누르면 된다. 코를 비비는 이 인사법은 삶의 숨결을 교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태국의 인사법은 “와이(ไหว้)”라고 한다. 두 손을 가슴 쪽에 모으고 “사왓디 캅(สวัสดีครับ)” 하면서 고개를 숙인다. 이때 합장한 손이 위로 올라갈수록 공경의 정도가 커진다. 이는 불교 문화권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티베트에도 고유의 인사법이 있다. 바로 모자를 벗고 허를 내미는 것이다. 그 의미는 자기는 머리에 뽕도 없고 허도 있으니 악신의 화신인 “랑 다르마(ལང་ཌར་མ་ཞུ་བ)”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준다.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에게는 반가움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짐을 뺏는 인사법이 있다. 그곳은 물이 부족하였기에 자신의 몸에 있는 수분 또한 귀한 것이다. 이로써 짐을 뺏는 것은 귀한 것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라틴과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

세계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뜨거운 열기가 계속된다. 스페인의 “라 토마티나(La Tomatina)”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토마토 축제”이다. 이는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스페인의 작은 마을 부ñ에서 열린다. 매해 평균 4만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토마토를 이용해, 한 시간 정도 싸움을 즐긴다. 이 축제는 1944년 폭락한 토마토 값 때문에 화난 농부들이 분풀이로 토마토를 던진 역사에서 시작되었다. 이때 매년 5만 킬로그램의 토마토가 거리를 뺑갈게 물들인다고 한다. 이 역사는 길지 않지만 붉은 토마토의 강렬한 색채와 역동감 넘치는 풍경이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4. 기후, 계절과 연관성이 있는 아시아의 유명한 축제

송크란 축제(Songkran Festival)는 매년 4월 13-15일 기간 동안 태국 전역에서 열린다. 공식 휴일은 4월 13-15일로 3일이지만, 전후 약 10일간은 축제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축제이다. 매년 2-3월경 인도 전역에서 열린다. 봄꽃들이 만발한 화창한 계절을 맞이하는 것인 만큼 당일에는 다양한 빛깔의 색 가루나 물감을 서로의 얼굴이나 몸에 문지르거나 뿌린다. 어떤 이들은 색 물감이 들어 있는 풍선을 던지거나 물감의 든 물총을 쏘기도 한다. 사원과 거리가 온통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이 장관 덕분에 “색채의 축제(Festival of colours)”로도 알려져 있다. 이처럼 문화축제 속에는 저들의 사상과 기질이 녹아 있다.

맺음말

현지 문화는 개체적으로 인사업에, 집단적으로 축제 가운데 농축되어 있다. 선교문화인류학자 폴 히벌트(Paul Hiebert)는 “선교란 특정 문화권의 생상품인 선교사가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다. 타 문화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문화를 쉽게 정죄하고 공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실수가 과거 선교역사에서 빈번히

인간은 영적이면서 또한 문화적인 존재이다.

개신교 선교는 공격적이며 현지 문화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복음이라는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좋은 토양이 준비되어야 한다.

인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문화는 변하며 살아 움직이는 동시에 과거의 것들을 전승한다. 무형문화이든 유형 문화이든 그 주체는 인간이다. 따라서 타 문화권 선교를 할 때에는 복음 못지않게 현지인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를 간파해야 한다.

2.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각 나라 인사법

세계의 여러 종족들은 그들 나름의 다양한 인사법을 가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른손을 내밀어 잡았는데 이것이 악수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등에서는 “비주(Bisou)”라는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 사이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거나 뺨을 부드럽게 부딪친다. 비주는 오른쪽 뺨부터 입을 맞추는 것이 관례이다.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에선 “홍이(hongi)”라고 불리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다. 서로 손을 잡고 “키아 오라(Kia ora: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코를 각각 다른 편으로 두 번 맞대거나 살

축제들이 있다. 축제는 그들 나름의 강렬한 문화표현이다. 우리는 축제를 통해 토착민들의 사상과 정서와 문화를 보게 된다.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은 지상 최대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저들은 “리우 카니발”을 즐기 위해 1년을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카니발의 어원은 라틴어인 Carnelevamen(살코기를 끊는다)이다. 카니발은 곧 다가오는 사순절이라는 금욕기간에 앞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마음껏 먹고 마시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 축제의 진미(眞味)는 삼바 퍼레이드이다. 축제 기간인 나흘

기간이 태국 한해 중 기온이 가장 치솟는 건기이다. 이때가 지나면 이어지는 우기에 풍부한 비가 내려 한해 농사가 풍요롭게 이뤄지기를 기원한 데서 유래했다. 송크란은 흔히 “물 축제”라고 불리는데, 기간 내내 벌이는 떠들썩한 물싸움이 페스티벌의 중심이다. 축제 기간의 물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설사 물을 맞았다고 인상을 쓴다거나 짜증은 내는 것은 금물이다. 인도의 홀리 축제(Holi, India)는 일명 ‘사랑의 축제’로 알려져 있다. 이는 힌두력으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됐음을 축하하는 봄맞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간 한인 세계선교는 현지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목표 지향적으로 밀어붙였다. 그 후유증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 타 문화권 선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도처에 암초가 있다. 우리는 성급함을 자제하고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저들이 호흡하는 대기처럼 뚫 수 없는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의 씨앗은 토양이 준비될 때 잘 발아할 수 있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6강 사울 (사무엘상 8-15장)

사무엘의 삶은 세상에서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 다. 단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삼상 4:1). 또한 ‘그에 의해서’가 아닌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가나안에서의 최고의 대적인 블레셋에 대한 승리도 주어졌습니다(삼상 7:3-12).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삼상 7:15)고 합니다. 왕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모양이 되었 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지도 않고 제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펼쳐질 듯이 보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삼상 8:5)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무엘을 이은 사사로 세웠는데 이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아서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삼상 8:1-3).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같이 않습니 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인 사무엘의 아들들 대신에 다른 ‘합당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대신 사람 왕으로 바뀌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에서 자신들이 이방신들을 섬긴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 사무엘이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광야를 지날 때까지는 사람 모세가 보이고 가나안 정복 때는 사람 여호수아가 보이고 사사 시대에는 사람 사사들이 보이 다가 이제는 사람 사무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때 도 그랬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모세는 신명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 립은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 가나나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신 31:16-18)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 개인인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모두 그들 자체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

의 계획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셔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열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사 6:9,10)고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

라’(사 10:20-22)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마 13:11).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마 13:13)고 하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한 덩어리로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죽고 광야 세대도 죽고 가나안 초기 정착 세대도 죽었지만, 이들은 한 덩어리로 아직 야곱이 up and down의 과정을 하고 있는 그때로 보면 됩니다. 아직 야곱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 ‘시가서’와 ‘선지서’를 거쳐 ‘복음서’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강림’이 이루어져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 오시고 만나주셔야,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이 아닌 다시 이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라 (눅 3:21-22) 찬 542장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요한에게 보
이셨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실을 믿어야 한다. 나에
게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전이 된 것
이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태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
다.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의 감동
으로 마음에 확신과 거룩한 기쁨의 증거가 나타나

다.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세례
요한은 귀로 그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
음으로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사
망의 생각은 잘 듣고 믿고 누리고 살고 있다. 말쑤
대로 실상을 알고 받아 누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
씀은 오늘 현재 살아 있는 말씀이다. “너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화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눅 4:1-4) 찬 290장

마귀가 활동함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마음
에 나타나는 생각으로 대화한다. 나를 넘어 뜨리고
자 하는 원수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
고 사망의 생각에 빠져 마귀가 원하는 모습을 나타
내고자 한다. 수시로 나에게 나타나서 유혹한다. 육
신의 생각에 빠지면 마귀의 밧에 빠진다. 항상 마
음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

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신다.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는 쉽게 믿고 받아들이고 품는다. 그 이유는 그
생각이 나를 위한 것으로 속여서 말하기 때문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살
아야 한다. 생명의 생각만이 사망의 생각에서 자유
케 한다. 주님 앞에 서라. 주님과 함께 있으라. 주님
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수 악한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눅 4:13-14) 찬 284장

마귀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고 떠나기도 한다.
마귀가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질 때 마귀가 와서 자기 생각을
더 해 준다. 그 생각을 발전시켜 오해하게 한다. 마
귀가 주는 대로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망의 생각을 품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그 생각을 발전시켜 더욱 악한
생각을 하게 한다. 사울 왕이 다윗으로 인하여 시기

심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마귀가 다
가워서 악한 생각을 더 해 주자 사울 왕은 계속하
여 그를 죽이고자 결심을 하게 되었다. 마귀의 종으
로 살지 않기 위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품어야 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임지 않고 살면 육신의 생각에 쉽게
빠져 누리고 살게 된다.

목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눅 4:36-37) 찬 288장

사람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포로가 되어 살고
있다. 악한 영의 생각을 믿고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 생각의 포로의 모습이다. 그리고 영적 자신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영적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주인을 보지도 못하고 대적도 보지도 못
하고 자신도 보지도 못하고 어둠에서 사는 것이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이요
자신을 구원하여 주지 못하는 것이다. 육신의 종으

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
나님이 하신다. 구원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에게 주님이 계시야 한다. 주님은 영적
빛이시다. 그 빛이 임하므로 인하여 어둠에서 벗어
난다. 빛이 있어야 어둠에서 구원을 받는다. 당신에
게 빛이 계시는가? 주님이 함께하시는가?

금 영적 소경의 눈이 열리다 (눅 5:4-8) 찬 325장

시몬에게 영적 눈이 열려 자신의 영적인 모습
이 깨달아진 것이다. 이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이다. 물고기를 갑자기 넘치게 잡게 된 일
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임
을 알게 되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다.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직 많
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기쁨과 만족과 예수님
에게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시몬은 자신

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시인
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깨달은 것이다. 하
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 것이다. 죄에 매인 자임
을 보인 것이다. 본인이 죄인임을 알아야 죄에
서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게 된다. 단지 이 세상
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분임
을 알게 된다.

토 주님의 지체로 성별 받은 사람 (눅 5:10-11) 찬 289장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진정
한 자신의 주인을 깨달은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영광
을 받은 것이다. 자신의 귀한 재산이요 생활의 수단인
데 그 배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그보다 더 귀한 것
을 가졌기 때문에 즐겁게 버릴 수 있게 되었다. 버린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소유한 증거인 것이다. 주님께
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연합으로 누리게 하신 복을 받은 것이다. 죄 아래서 사
는 자기 자신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이
신 나를 책임지시는 사랑의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된 것
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었다. 주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교회음악 이야기(67)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현대 예배자들을 위한 고전음악의 재 발견

“라틴 텍스트에 의한 레퀴엠과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Ein deutsches Requiem)을 중심으로” VII

제5악장

이 곡은 브람스가 전체 곡 중 가장 마지막에
쓴 곡이다. 소프라노 솔로가 등장하여 주도적으
로 선도해 가는 곡으로 이 곡 전체에서 가장 고
요하고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이 특징이다.
이 곡을 작업하면서 브람스는 어머니를 염두에
두고 그녀를 통해 위로의 말을 듣기를 기대했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
이요”(요브람스는 소프라노 솔로의 선율 속에
지속적으로 위로(Trösten)를 전하면 합창이 이
를 받아 위로(I will comfort you)를 이야기한
다. 브람스는 이어 외경(Apocrypha) 가운데 하
나인 집회서(Ecclesiasticus)의 한 부분을 더해
서 또 다른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내
가 잠시 동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보았거늘
내가 많은 안식을 얻었나이다” 이어 마지막 부
분에서 소프라노는 위로의 말을 끝내고 다시 악
장 시작 부분의 가사로 돌아간다: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슬픔에 잠긴 아
들에게 마지막 위로를 건네며 사랑의 작별 인사
를 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이 순간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플루트의 부드러운 화음과
함께 목소리는 희미해지며 사라진다. 이어 솔리
스트는(어머니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종결
된다.

제6악장

6악장에는 전체 작품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음악이 담겨있다. 마치 베르디의 레퀴엠
중 진노의 날(Dies Irae)을 연상케 한다. 두 번째
로 바리톤 솔로가 등장하여 음악의 선율과 텍스
트가 어느 정도의 내면 성찰로 시작하게 된다. “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히 13:14) 하지만 급세 역전을
시켜 흥분된 모습으로 외칩니다. “우리 모두는
잠들지 않으니, 하지만 우리 모두는 모두 변화
될 것입니다.” (고전 15:51,52)
그리고 갑자기, 한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부활을 기다리는 영혼의 역할을
하는 코러스가 묵시록적인 비전으로 올리면서
이 곡에서 대전환(High Point)점을 이루어 두
번째 악장의 드라마와 균형을 맞추어 “소망”을
전한다. “오 죽음아, 그대는 어디 있느냐? 오 지
옥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 “죽음은 승리에
삼켜지네.” (고전 15:54,55)

이때 브람스는 일반적으로 나팔을 올리라는
데 사용되는 악기인 트럼펫(Trompeten)을 텍
스트에서 지칭하지 않고 트롬본(Posaune)으로
표기하였다. 실제 오케스트레이션에서도 그 텍

스트가 나오는 부분은 트럼펫이 주를 이루어 리
드하지 않고 트롬본 앙상블(알토, 테너, 베이스,
그리고 튜바)이 리드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트
롬본 악기가 주는 웅장함을 더하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표현했고 사운드를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필자의 소견을 피력한다. 드디어
이 곡 전체의 가장 클라이맥스를 향해 질주하게
된다. 음악적으로 이 곡 전체에서 사용된 세 개
의 푸가 중 마지막을 이 부분에 전개하며 계시
록에 나오는 최상의 영광 찬양(Doxology) 부분
인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니”(계 4:11)라는 가사와 함께 이 곡 전
체에서 전개된 푸가 중 가장 길게(131마디) 펼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푸가로 마무리
하게 된다. 필자가 연주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
할 때는 웬지 숨이 멎는듯한 강렬함이 전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다.

제7악장

찬란한 빛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7악장으로
이어진다. 6악장의 마지막 화음을 출발점이자
영감으로 삼아 소프라노 파트는 이 작품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인 복(Selig
sind)을 표현한다. 1악장에서 표현했던 선율을
한 옥타브를 올리고 역으로 사용하여 다른 복
(Selig sind)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
다”를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항상 애통해하는 마
음을 갖는 것이 인생 삶의 여정 가운데 누리게
되는 진정한 복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율을 상행
으로 진행했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사실
을 알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마지막에 선율을
하향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브람스의 마음
을 필자가 엿보게 되는 부분이다.

이곳에서 대 전환(High Point)은 조성이 바장
조(F Major)에서 전형적인 부활을 상징하는 가
장조 (A Major)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다. 부활
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들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리니”가 지속된다. 그리고는 마
지막 위로와 축복의 가사가 이어진다. 종결 부
분에서는 상향과 하향을 교차하는 두 가지 형태
의 복을 서로 나누고 1악장의 마지막 선율을 그
대로 모방하여 “복있으라(Selig sind)”를 고요히
외치며 큰 여음을 남긴 채 대단원의 드라마를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필자는 브람스의 레퀴엠을 연구하
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주하며 전통적으로 가졌
던 레퀴엠에 대한 시각을 다른 방향의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이 작품이 더욱
본질적인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보게 되었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편지

아르헨티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아르헨티나의 장영호 선교사입니다. 항상 아르헨티나 선교와 사역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르헨티나는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어느새 봄이 지나 여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겨울의 추운 한파가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 땅에 모든 삶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루속히 평화가 오길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23년 12월 밀레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1년 동안 800%에 이르는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많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더욱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국민들의 데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와 지원을 삭감하고 연금자들에게 지원했던 혜택을 제한하고 연금이 물가 인상에 따라가지 못하자 거리로 나오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르헨티나 38년 동안 살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하루속히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정되어 길거리로 쫓겨나고 노숙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기도합니다.

■아가페 교회 사역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가페 개척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성경공부, 금요일 저녁 집회와 토요일 주일학교 및 남선교회 모임과 매

주 일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새롭게 나온 신자들이 은혜받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리안 자매는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딸과 남편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합심 기도함으로써 치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도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은혜받고 지병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간증도 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형제 부부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간질병과 영적 놀림에 있었는데, 가정을 방문하고 예배와 기도 이후에 몸이 회복되어서 댄서팀의 리더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야간에 건물 청소를 부부가 하면서도 교회 봉사와 청소년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가페 교회 건축
아가페 교회 건축을 하면서 3번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건축재정의 부족과 물가 인상, 건축 업자와의 갈등과 계약 파기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건축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가페 건축은 초기 건축 예산 미화 12만 불보다 50% 이상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년 800%에 이르는 물가 인상과 달러 환율의 악화와 재료비



인상, 인건비 인상 등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는 저희들의 건축 사역에 큰 어려움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나중에 건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연기되면, 예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완공을 향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가페 교회 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일에 아가페 교회 봉헌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외부 페인트 공사
교회 외부 페인트 공사는 파르끼니 라는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비바람을 대처할 수 있는 페인트입니다. 페인트와 모래를 섞어서 만든 페인트인데 중남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남미는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많이 씩니다. 그래서 곰팡이를 방지하고 비 새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페인트 공사와 건물 전면에 아래쪽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

회 문이 철문이고 창문마다 철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 보니까 좀도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방범창과 CC 카메라를 설치하여 도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아가페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교회 예배에 필요한 방송 장비(마이크, 앰프, 인터넷 공사) 와 아동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주방 기구들이 준비되도록
2. 아가페 교회 봉헌예배를 위해서 (12월 1일 오후 3시)
3. 교회 완공까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4.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5. Southern Baptist Seminary 신대원 공부 중인 큰아들(인성) 가정의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6. 장영호, 백미영 선교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장영호, 백미영 선교사

나눔을 칭송할 때 만연의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실 하나님은 자신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고 흡족해 하시리라 확신하게 되었다.

이 곡은 분명 시대를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존귀, 영광, 그리고 능력을 선포하며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 당위성을 증명해 준 위대한 작품이다.

iyoon@wmu.edu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카우르 종족

▲ 인구
약 40,000명

▲ 종교
이슬람교 70%, 민족 종교 30% 복음화율 0%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수마트라섬 벵쿨루주의 원주민으로 주로 강가에 산다. 집을 파란색과 흰색으로 칠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벼농사를 중시해 수확기가 지난 후 결혼식을 하며 추수기에는 서로 돕는 풍습이 있다. 17세기에 수니파 무슬림이 되었으나 정령숭배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 기도제목
1. 카우르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되도록
2. 카우르 종족의 농업 기술이 향상되어 농산물 재배량이 늘어나고 농산품 무역과 모터보트를 이용한 낚시 등을 통해 빈곤한 삶이 나아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교회음악이야기

(14면에서 계속)

브람스가 이 레퀴엠 작곡을 모두 끝내고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 마음은 지금 위로 받았네! 결코 극복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장애를 이겨내고 높이 아주 높이 비상 중이네” 그가 받은 위로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레퀴엠의 기본 정신인 죽은 자들을 위로하려는 사상에서 산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고 자평하며 확신에 찬 고백을 한 것이었다.

브람스의 이러한 고백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24년 8월 18일, 미국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필자가 이브람스 레퀴엠을 연주한 후 유튜브 영상으로 이 작품이 올려지게 되었다. 약 열흘이 지난 즈음에 한 일본인 시청자가 이 연주 영상을 보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것을 보았다. “このな 작품을 いていると

ブラームス好きの神 が後ろで微笑みながら いているような 感じがします(이 장엄한 작품을 듣고 있으면 브람스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뒤에서 만연의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필자는 이 댓글을 보며 하나님이 브람스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사는 현대 예배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복, 소망, 그리고 위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으셨다고 확신이 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고, 온 우주 만물들이 하

나눔을 칭송할 때 만연의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실 하나님은 자신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고 흡족해 하시리라 확신하게 되었다.

이 곡은 분명 시대를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며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존귀, 영광, 그리고 능력을 선포하며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 당위성을 증명해 준 위대한 작품이다.

iyoon@wmu.edu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www.midwest.edu

새로 신설된 학위과정

Ph.D. in Financial Economics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BA)

Master of Fine Art (MFA) / Doctor of Fine Art (DFA)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경영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교육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단풍과 단풍나무

캐나다는 단풍의 나라입니다. 화려한 가을 단풍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이자 캐나다에서 단풍을 즐깁니다. 토론토에서 퀘벡까지 800Km 이상의 뾰족한 길은 아름다운 단풍길(Maple Road)로 유명합니다. 감사한 것은 퀘벡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네 한 바퀴,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단풍의 풍치에 흠뻑 젖어 들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국기는 한가운데 붉은색 단풍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전의 국기는 달랐습니다. 영국연방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영국 깃발이 왼쪽 위에 그려진 붉은색 기였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캐나다의 공식 국기로 채택되었지만, 프랑스계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바꾸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단풍잎 깃발(The Maple Leaf Flag)은 1964년부터 공식적인 국기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불렀던 '가을'이라는 동요가 생각납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술술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

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가을이 오면 푸른 잎은 반드시 붉은 치마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붉은 치마는 낙엽이 되어 가을바람에 이리저리 뒹굴다가 사라집니다. 세월의 힘 앞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회색빛 가을비를 맞으며 거닐어 봅니다. 단풍이 신발에 밟힙니다. 아름답던 단풍잎이 어느새 떨어진 낙엽(落葉)이 되어 있습니다. 비에 젖은 단풍이 추워 보입니다. 안쓰럽고 측은합니다.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니?" 물어보니 대답이 없습니다. 단풍잎에 맺힌 빗방울이 이별의 눈물로 고여있습니다.

늦가을의 단풍(丹楓)은 '붉은 단'과 '단풍나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단풍'은 '단풍나무'의 준말입니다. '단풍'만 생각하면 서글퍼집니다. 그러나 '단풍'의 원래 말, '단풍나무'를 생각하면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단풍잎은 떨어지더라도



단풍나무는 그대로입니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단풍나무가 자랑스럽습니다. 내년에는 더 아름답고 찬란한 붉은 단풍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피게 하소서" (시편 30:11)

bible66@gmail.com

베드로 진서 33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두 번째 좋은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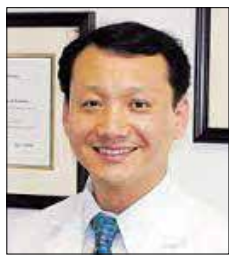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다. 정년으로 은퇴하시며 원로목사로 추대를 받으신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그는 평생의 지론으로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좋은 교회다"라고 말했다. 왜 첫 번째 좋은 교회라 하지 않고 두 번째라고 했을까? 그것이 겸손이 아닐까? 아니면 첫 번째라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겠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팬데믹 이후 각 교단 총회

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위의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했다. "팬데믹 이후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혹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나은 교회 곧 첫 번째 교회를 찾아서 떠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교회를 찾다가 세 번째 네 번째 교회로 헤맬 수도 있기에 그럴 바에야 두 번째로 좋은 교회인 우리 교회로 다시 나오라"고 하셨다.

혹시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공감하면서 다시금 이 두 번째 본 교회로 다시 나오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교회가 첫 번째나 두 번째를 생각하지 말고 목사나 장로 성도들이 우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첫 번째 교회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섬길 수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 참 재미난 표현이다.

revpeterk@hot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뇌졸중에 관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무엇일까? 미국인들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심혈관 질환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암과

뇌졸중(중풍)이고 세 번째가 심혈관 질환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의 흔한 사망원인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중간쯤이라고 본다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흔

한 원인의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인 김모씨는 3일 전부터 심한 구토 증상을 느꼈다. 처음에는 식중독으로 생각하고 집에서 쉬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었고 이를 전부터는 우측눈이 아프고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구토증상 때문에 주위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가 김씨는 뇌 단층촬영(CT)상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뇌혈액 제거 수술을 했다. 뇌수술 후 김씨는 곧 회복되었고 퇴원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은퇴한 60대 후반의 남성인

박모씨는 아침에 일어난 후 갑자기 말을 할 수 없었다. 또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서 수저를 들 수 없었다. 가족들은 급히 911을 불렀고 박씨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을 잃었고 호흡이 정지되었다. 응급실에서 심폐 소생술을 받은 박씨는 뇌 단층촬영상 뇌출혈이 없었다. 따라서 박씨는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혈전 용해제(thrombolytics)를 주입받았다. 초기 치료 덕분에 박씨는 몇 주간의 재활 기간 후에 운동신경을 완전히 회복했다.

뇌졸중(stroke)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풍의 의학 용어인데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

는 출혈성 뇌질환(hemorrhagic stroke)과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질환(ischemic stroke)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허혈성 뇌질환이 전체의 80%정도이고 출혈성 뇌질환은 20%로 허혈성 뇌질환이 더 흔하다. 허혈성 뇌질환의 일차적인 예방은 심장 질환의 예방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흡연을 하거나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중풍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중풍을 한번 앓은 경우는 두 번째 중풍이 올 위험이 높는데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중풍의 재발을

40%정도 예방할 수 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손발을 따거나 우황 청심환등을 복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 아닐뿐 아니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의식이 좋지 않은 중풍 환자에서 기도를 막아서 흡입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두 번째 중풍에서 보듯이 중풍의 80%를 차지하는 원인인 허혈성 뇌질환의 경우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증상의 완전 회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문의:213-383-9388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8:3